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1 09 Vol. 175

1 〈선함의지〉 장지에 채색 | 90cm×46cm | 2018
2 〈조화로움〉 3합장지에 석채, 혼합 재료 | 195×130cm | 2019
3 〈소리형태_조화〉 3합장지에 석채, 혼합 재료 | 60.5×41cm | 2020

이달의 표지 작가

이우주

작가 이우주는 조선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과정을 수학하고,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분채와 석채로 채색하는 동양화를 그리고 있다. 개인전 〈이우주 개인전〉(GalleryS, 2019)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L153 Gallery, 2020)을 개최했고, 9월 15일 인사동 갤러리 H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연다. 그리고 단체전 〈감각의섬〉(신한갤러리, 2020) 〈비커밍〉(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2020)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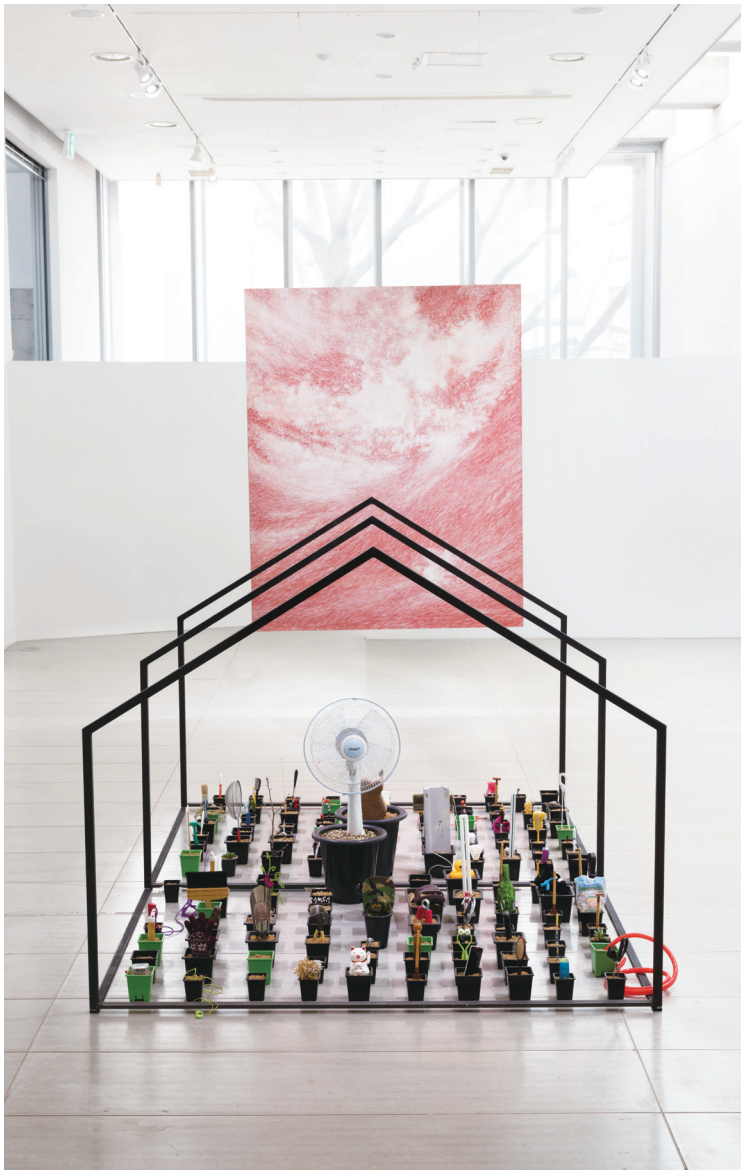
이우주 작가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스팍TV〉

청각장애를 가지고 그 '들리지 않음'을 느끼며, 들리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 보통 일상의 언어 수단인 문자와 음성으로 보고 듣지만,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을 때 들리지 않는 세계의 낯선 현실을 발견한다. 그 과정에서 들리는 세계와 들리지 않는 세계의 복잡한 이질성을 들춰내고,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화폭에 표현한다. 자연물 형태를 일부의 작은 요소 프레임처럼 빌려서 두 세계를 조합하고 해체하며 조화로운 심상을 만들기도 한다. 내게 미지의 공간인 '들리는 세계'의 생동감을 순간적으로 감지하고, '들리지 않는 세계'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적 감응을 하나의 화면에 담은 작품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식물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에는 희로애락이 투영된다. 자연물의 민감한 온도 차이는 의미의 상이함을 만들어낸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체온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꽃도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는 미세한 기복을 경험할 것이다. 자연물을 바라보고 영적 울림을 느끼며 살아 있는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홀히 대하며 상실된 대상의 존재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연물과 영혼의 관계, 그리고 삶과 영혼의 문제를 관찰해 본다. 고정된 사유의 틀은 깨버리고, 내적 충돌과 외부와의 불협화음은 작품을 통해 응집된 조화로운 심상으로 재생된다. 내리는 비를 보면 빠른 속도감이 느껴진다. 빗소리는 잠잠한 채 나의 욕구와 감정에 스며든다. 반면 빗물을 가만히 바라보면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아주 느린 속도감이 느껴진다. 현실의 대상을 조합하면 낯선 감각으로 또 다른 언어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 속에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Contents

2021 09 Vol. 175



김이박 〈사물의 정원-블루메 미술관〉, 혼합 재료, 가변 크기, 2017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이우주

테마 토크

사람을 위로하는 식물, 식물을 치유하는 예술

06 칼럼 초록빛 머금은 문화예술계

08 리포트 식물을 되새기는 사람들

12 인터뷰 작가 김이박

14 에세이 수다쟁이 식물 이야기

사람과 사람

16 문화인 발레리나 박세은

22 작가의 방 황지혜 작가·손미미 작가

24 서울 찰나

26 진실 혹은 대담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1 독립예술집담회 11th with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이슈 & 토픽

32 쟁점 대한민국예술원을 비판한 단편소설

34 화제 1 MZ세대 미술 시장 참여

36 화제 2 문화예술과 게임

38 화제 3 2021 〈서커스 캬바레〉와 〈서커스 캬라반〉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용태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누리집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8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공간, 공감

40 공간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42 공감 1 연극 〈분장실〉과 뮤지컬 〈광화문연가〉

44 공감 2 책《우한일기》와《1984》

SOUL OF SEOUL

46 서울 산책 구석구석 삶이 있는 염리동 풍경

48 김송희의 썰(說) 막장 드라마를 욕하지 않는 이유

50 류태형의 음악 정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

WEBZINE+

56 웹진 [비유] 내 것이 아닌 이야기

58 웹진 [연극in] 프로젝트그룹 빠-다밥 〈추락 II〉

60 웹진 [춤:in]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진수

62 9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정영선

사람을 위로하는 식물
식물을 치유하는 예술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취미로 반려 식물을 돌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도 식물을 단순히 하나의 소재나 배경이 아닌 창작의 모티프로 삼는 활동이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예술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거나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위안을 표현할 뿐 아니라 아프고 힘든 식물을 치유하기도 한다. 각박한 현대사회에 지친 인간들은 식물과의 관계 맺기와 교감을 통해 숨을 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김이박 〈당신의 정원 프로젝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0,
촬영 황예지

식물, 2인칭의 섬세함

초록빛 머금은 문화예술계

한국에서 식물 기르는 일은 중·노년층의 취미로 많이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좀 다르다.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식물을 찾고, 이른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카페는 식물을 적극적으로 인테리어에 활용한다. 심지어 거의 식물원에 가깝게 꾸며놓은 카페도 본 적이 있다. 식물 기르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힙한' 취미다.

'플랜테리어Planterior'는 식물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조어다. 식물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면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플랜테리어는 코로나19 이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취미를 찾던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었고, 사람들이 서로 '거리 두기'하는 만큼 식물과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다. 식물은 전보다 더 많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다. 하지만 식물의 반려 인간으로서, 식물을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하고 들이는 행동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사실 식물과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든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는 아예 다른 층위에서 고도의 섬세함이 요구된다. 식물은 소리나 움직임보다 형태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반려 인간에게는 잎의 두께와 색깔을 관찰하는 능력과 더불어 흙의 굳기, 화분 주변의 온도와 습도 등을 매일 살피는 성실함까지 필요하다. '식물 집사'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적이며 치열한 식물의 생 그래서일까, 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오래 이어질수록 식물은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문화예술계 많은 작품은 식물을 단지 하나의 소재나 소품을 넘어, 그 자체로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있다. 식물은 물론 예쁘고 귀엽지만, 그런 층위를 넘어서 사람을 고민하도록 만들곤 한다.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다.

식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술 작품이나 전시, 혹은 식물 집사가 쓴 에세이가 대부분 강조하는 것은 식물의 아름다움이나 식물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식물과 인간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이다. 식물 집사들의 에세이는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시작해서 각 식물과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분투를 보여주곤 한다. 그 과정에서 식물이 기존에 생각하던 것처럼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아가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필자는 이것이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닌 식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은 보통 식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위로, 혹은 식물의 매력을 많이 언급한다. 필자는 이것을 1인칭과 3인칭의 사고라고 여긴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에 1인칭, 관찰자로서 식물을 서술하기에 3인칭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랜테리어는 1인칭과 3인칭으로 식물을 대하는 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일은 2인칭이다. 식물을 '너' 혹은 '당신'의 위치에, '나'를 식물의 입장에서 '당신'의 위치에 두는 일이다. 그래서 식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식물의 모습이나 작은 변화에 더 집중한다. 보람이나 위로도 물론 느끼지만, 그 조용한 생들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레 고민과 걱정이 많아진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와 비슷하게 '너랑 잘 지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허리 숙여 '너'와 함께 살아간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문화예술계의 초록 바람은 식물을 2인칭의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듯하다. 허리를 숙이고 흙을 만지며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식물이 단지 '나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나'와 관계 맺는 '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반려 식물의 종류·크기·건강이 반려 인간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다.

2인칭으로서의 식물과 일상을 함께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섬세함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정해진 규칙만을 따르면서는 예민한 식물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라는 1인칭과 상식이라는 3인칭을 벗어나서 도무지 말이 없는 식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길러지는 것은 큰 소리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나'와는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듯한 존재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에 맞는 관계를 고민하면서 생겨나는 2인칭의 섬세함일 테다.

필자는 식물과 살아가면서 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고, 손바닥만 한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일도 꽤 많은 책임을 수반한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배움은 이 푸른 존재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양상이 필자의 욕심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가 그렇듯, 식물도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글 **안희제** 《비마이너》 칼럼니스트, 《식물의 시간》 저자

녹색 생활을 되찾는 길

식물을 되새기는 사람들

옛 문화에서도 조상들이 자연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을 곁에 두고자 소담한 정원을 만들고, 때로는 자연을 옮기기보다 스스로 녹수청산에 몸을 담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대에도 이어진다. 사람은 식물을 곁에 두고 싶어 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출판·전시·문화 공간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에도 식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예술계에 나타난 식물의 모습 초록 잎이 무성한 나무가 드리우는 그늘 녹음綠陰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가의 창작 동기가 된다. 푸르른 식물은 고즈넉한 휴식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며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도 자연을 연구하고 창작의 모티프로 삼는 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

복합전시공간 '피크닉'은 전시 〈정원 만들기 GARDENING〉을 선보이며 도심에 자연스럽게 식물 공간을 만들었다. 전시는 자연성을 회복하는 장소로서 도시 정원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위로' '치유'의 개념을 담고 있다. 설치미술가 최정화, 〈말하는 건축가〉를 연출한 영화감독 정재은, 그래픽디자이너 박연주, 박미나 작가 등이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정원의 가치를 표현했다. 관람자는 전시를 보며 식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식물을 끌어들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식물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는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유휴 공간 프로젝트로 〈당신의 정원〉(2020. 11. 24~12. 20)을 진행했다. 〈이사하는 정원〉 프로젝트 등 식물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예술 작업으로 선보이는 김이박 작가와 미술관의 시설 청소원 12명이 함께 야외 테라스에 정원을 만들어 관리했다. 김이박 작가는 '소장'이 돼 프로젝트를 함께 했고 참여자들은 실명이 아니라 각자가 좋아하는 식물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정원을 함께 가꿔나갔다. 미술관 내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식물을 선택하고 때로는 선택받으며 인간과 식물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이
전시 〈정원 만들기 GARDENING〉을
10월 24일까지 개최한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술관이 휴관한 늦봄부터 가을까지 정원을 조성해 식물을 매개체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하나의 정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관상용 꽃이나 식물을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눈길이 간다. 이들은 조금 더 '쓰임 있는 작물'을 길러내는 것으로 식물을 돌보고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다.

식물을 예술의 대상으로 바라본 관점 역시 눈길을 끈다. 엄유정 작가의 화집《FEUILLES》는 독일 북아트 재단과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책 디자인 공모전 '202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서 최고상인 '골든레터Golden Letter'를 수상했다. 프랑스어로 '푀유FEUILLES'는 '잎사귀들'이라는 의미가 있으며《FEUILLES》에서는 식물과 종이를 모두 의미한다. 이 책에는 엄유정 작가의 식물 그림 112점이 수록됐다. 한국

의 드로잉북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돼 수상했다는 소식은 출판업계는 물론 디자인 분야까지 들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화집을 통해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식물의 모습을 조명하는데, 이는 식물의 예술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바라보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FEUILLES》는 식물이 가진 모습을 외형적인 관점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지 공모전 주최 측은 "섬세하고 고운 종이 위에 연필 드로잉으로 시작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선과 종이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테일을 보여준다. 엄선된 소재를 사용해 독자에게 작가의 작품을 촉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FEUILLES》는 단순히 시각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촉감을 통해 작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식물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디테일을 더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객체가 됐다고 생각한다. 식물의 미세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예술 활동을 출판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다.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것에서 식물을 하나의 주체로 이해하려는 모습 역시 눈에 띈다. 신혜우 작가의 자연 일러스트 에세이《식물학자의 노트》는 식물이라는 존재의 특성을 오롯이 살피고 식물 자신의 생존에 대해 쓴 책이다. 신혜우 작가는 식물을 연구하며 식물을 그리기도 하는 식물학자다. 식물분류학과 식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융합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영국왕립원예협회 보태니컬 아트 국제전시회에서 식물 일러스트로 금메달을 수상했다.

《식물학자의 노트》는 어떤 이유를 들어 식물과 인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생태계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종을 퍼뜨리는 식물의 강인함과 삶을 그림과 글로 담을 뿐이다. 신혜우 작가는 학술용 식물 도해도를 그리다가 식물에 색을 처음 칠하게 됐다.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의 여린 잔뿌리 등 식물의 섬세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해 식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했다. 식물을 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식물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실적 특성과 이론을 이해하게 하는 작업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식물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예술계에 깊게 침투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식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다채로운 분야에서 식물의 활약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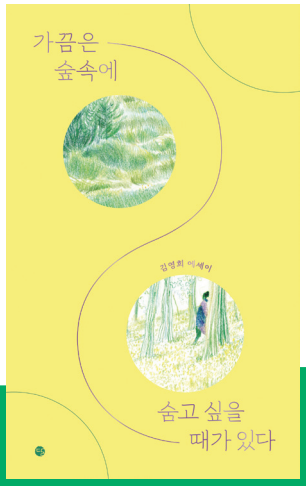
- 엄유정 작가의 화집 《FEUILLES》
- 신혜우 작가의 자연 일러스트 에세이 《식물학자의 노트》
- 김영희 작가의 에세이 《가끔은 숲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다》

식물을 찾는 다양한 이유 문화예술계에서 식물을 표현하고 이를 작업화하는 방식에는 하나의 종으로서 생물을 바라보며 존중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 식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을 아끼는 마음이 투영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작가들의 작업을 향유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휴식' '힐링'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최근 많은 이가 식물을 찾으며 개인의 일상에 식물을 들일 여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식물을 둘러볼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며 때로는 작은 화분을 들여 집을 가꾼다. 근래 '반려 식물 기르기'가 활성화된 것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업무 공간에도 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오피스' 문화가 생겨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피스 공간을 녹색 식물로 채워서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맡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하는 사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녹색 생활을 지향하며 '플랜테리어'를 선호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이 식물을 찾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김영희의 에세이《가끔은 숲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다》는 숲을 걷고 식물을 들여다보는 일을 즐기는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작가는 긴 시간 식물을 관찰하며 신종 '쇠뿔현호색Corydalis cornupetala' 을 학계에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식물 탐사로 표현한다. 하지만 그의 책은 식물 탐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식물을 되새기는 일은 하나의 산책이고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과정이다. 그는 식물을 섬세히 들여다보고 종류를 하나하나 알아가며 느낀 식물과의 유대감을 책에 기록했다. 인간은 식물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편안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

어쩌면 인간은 '결국엔 자연'이라는 답을 아는 듯하다. 팬데믹 장기화로 많은 이가 지쳤지만 다른 취미 활동 외 식물에 관한 관심이 대두하는 현상은 산업화를 겪은 지구에서 인간이 숨 쉬고 평안을 찾는 방법이 녹색 생활을 되찾는 길이라고 스스로 깨닫는 과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을 연구하고 문화예술 영역에 끌어들이는 것 또한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며 많은 이가 이를 향유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한 번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식물을 찾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식물을 알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식물 식물을 알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인간이 식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휴식'과 '편안함'만에 기대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그들은 식물이 인간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했으나 오히려 식물의 삶에 인간이 들어가는 일에는 회의적이다. 식물을 바라보고 그 삶의 투쟁을 지켜보며 가치 혹은 의미를 찾으나 도리어 인간이 식물에 주는 이로움은 딱히 언급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식물의 생장이란 교훈이며 투쟁과도 같은 강인한 생명력은 감탄의 대상이다. 때로는 푸른 숲 내음에 위안을 얻고 그 자체가 안식이 된다. 사람은 식물을 연구하고 이를 예술적 행위로 치환하지만 한편으로 식물의 사실적 모습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위로받는다.

식물학자인 신혜우 박사에게 식물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식물이란 무엇인지 물었다. 신혜우는 "식물을 연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식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다. 식물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인간이 한 종이듯, 식물도 한 종이며, 또 세부 종류가 아주 많아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 식물을 인간과 동등한 객체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식물은 식물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했다.

글 **윤미지**《핸드메이커》기자
사진 제공 **피크닉, 대한출판문화협회, 김영사, 달**

당신의 식물은 안녕하신가요

작가 김이박

'김이박 소장'은 의뢰자의 시들어가는 식물을 치료해 준다. 치료에 앞서 의뢰자에게 식물과 어떤 정서적 유대가 있는지 물어보면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딱히…"라는 유의 대답이 돌아온단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온 식물을 정성껏 보살펴 살려낸다. 의뢰자의 '식물이 죽을까 염려하는' 조그만 마음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식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를 모아 탐구한다. 그는 드로잉·설치·영상·퍼포먼스 등 여러 방식으로 예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이다.

Q. 독자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작가 겸 정원의 소장이라고 보통 소개해요. '김이박 작가님'은 딱딱하고 평생 예술만 하면서 살 것 같아서 명함에도 '소장'으로 적었습니다. 원래도 작가가 아니었어요. 플로리스트라고 꽃 꾸미는 일을 하다가 그림도 그리면서 작업에 입문했어요.

Q. 어떤 계기였나요?

2014년에 고양시에 살면서 식물을 엄청 많이 키웠어요. 400가지 넘는 식물을 곁에 두면서 SNS에 자랑했죠. 그러다가 제가 작가로서 작업하게 된 계기를 주신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저는 '고무나무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6개월 넘게 지켜봤어요. 매일 고무나무 잎을 소중히 닦고 계셨어요. 제가 식물을 많이 키우는 게 소문이 났는지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고무나무가 아픈데 봐줄 수 있느냐"고요. 고무나무가 무거우니까 할머니 혼자서 분갈이를 못 해 뿌리가 썩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중하게 키우시는지 궁금해 물었더니, 2000년대 초반에 아들이 개업한 사무실의 화분이었는데 부도가 나버리고 아들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덩그러니 남은 화분을 집에 가져와 여태껏 키운 거죠. 나무가 건강하면 아들이 건강하겠거니 싶어 소중히 키우셨는데, 이제 나무가 아프니까 아들도 아픈 게 아닐까 걱정이 드신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어

요. 그때까지는 식물에 감정 이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랑용으로 식물 키우기를 그만두고 작가로서 어떻게 작품화할지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식물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기대는 심리가 뭘까 궁금해졌거든요.

Q. 작가님이 식물에 감정 이입한 작업이 있을까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도당都堂 할아버지 느티나무가 있어요. 도당은 동네 사람들이 수호신을 모시고 복을 비는 곳인데요. 제가 2015년에 방문했을 때 마침 굿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할머니 느티나무도 있었대요. 400년 넘도록 마을을 지켜주는 부부 나무였는데 1973년 팔당댐이 생기며 할머니 나무는 물에 잠기고 할아버지 나무만 남은 거죠. 사람들은 할아버지 나무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를 잃은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근조 화환에 〈공무도하가〉를 적고 하얀 국화꽃을 강에 띄워 보냈어요. 〈공무도하가〉가 반려자를 잃은 이의 한탄을 노래한 시가잖아요. 두물머리에서 한 퍼포먼스는 사람 아닌 식물을 위로하는 작업이었죠.

Q. 작가님이 식물을 대하는 태도가 궁금해요.

식물을 기르는 제 마음이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전시 〈노심초사〉(2016)를 개최했어요. 재수생 시절에 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줬는데요. 그 편지 위에다 식물을 겹쳐 그린 작품을 전시에 내놓았어요. 자식을 노심초사하며 키우는 입장에서 식물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그렇지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식물을 대하지는 않았어요. 식물을 쳐다보기도 싫은 때도 있었죠. 개인 사정 때문에 공황장애도 겪고, 저를 향한 시선이 '식물을 좋아하니까 착할 거야'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거야' 하는 무례한 경우가 많았고요. 〈미모사〉(2018) 전시에는 그런 신경질적 반응을 담았어요. 대부분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모사랑 무초는 달라요. 미모사는 만지면 움츠러들고 무초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춰요. 식물도 반응한다 말하고 싶었죠. 사람을 치유하고 격려하는 주제로 식물을 선보이는 전시가 많이 열리고 그만큼 많이 불려 다녀서 힘들었어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 식물을 이용해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양상이 안타까웠어요. 예능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나왔듯 "오늘은 아무 사건도 없었습니다"라면서 뉴스가 끝나는 세상에서 식물을 보이면 좋겠어요.

Q. 식물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이 '아이들'은 제가 없으면 다 죽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식물에게 감탄사를 뱉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잘 자랐네~" 이런 식인 거죠. 부모님은 20년 넘게

전시 〈당신의 정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0, 촬영 김기노

혼자 사는 아들 보면서 식물에게까지 말하느냐 걱정하는데요. '아이들'은 제 관심이나 사랑을 오롯이 받는 존재라 정말 좋아요. 제 사랑만큼 분명한 결실을 보여줘요. 또 제 은인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작업도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만큼 많이 보니까 작업의 맥락을 자연스레 만들고 다양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 앞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고무나무 할머니'가 워낙 임팩트가 커서요. 앞으로도 식물을 매개체로 여러 사람 혹은 식물의 사례를 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당시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랑 친해지고 고무나무를 매개로 본인의 힘든 시절, 아들에 대한 그리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작업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식물을 매개체로 여러 사례를 듣고 이야기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 활동가이기도 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일이 제 궁극적 목표고요. 작가를 평생 할지는 모르겠지만,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는 계속 남지 않을까요.

글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공간느루** | 사진 제공 **김이박**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데스의 사계

수다쟁이 식물 이야기

《아무튼, 식물》의 저자 임이랑은 말 못하는 식물 친구들의 "물 좀 주세요"라는 몸짓을 이해하는 식물의 '반려 인간'이다. 그가 자신의 친구 '필레아'의 방구석 사계절 체험기를 글로 옮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레아라고 합니다. 동그란 이파리를 가진 식물이지요. 사실은 필레아 페페로미오이데스Pilea Peperomioides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길어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필레아라고 줄여서 부르곤 해요. 아주 오래전 저의 조상들은 중국의 남쪽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고산지대의 그늘지고 축축한 바위가 우리의 고향이지요. 어느 날 노르웨이 선교사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고 귀하게 키워졌답니다. 귀여운 이파리 때문인지 우리를 집 안에 두고 키우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전해지다가 결국 전 세계로 퍼져서 살아가게 됐지요. 그렇게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서울에서 뿌리를 내려 살고 있습니다.

봄

저의 첫 기억은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우내 우리 가족에게 물을 주고 해를 보여주던 농부는 한낮의 기온이 따스해지자 우리가 살던 플라스틱 화분을 거꾸로 들고 가족을 모두 꺼냈어요. 농부는 옆에 서서 구경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필레아는 어차피 다산의 여왕이라 괜찮아"라고 말하며 우리가 각자 아주 작은 뿌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엄마로부터 잘라냈습니다. 저는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엄마와 저를 잇던 굵은 뿌리를 슥! 자르고 제가 흙 위로 떨어지던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족과 옹기종기 모여 살던 저는 순식간에 모두와 떨어져 작은 플라스틱 화분으로 홀로 옮겨졌습니다.

그 작은 화분에서 몸속 호르몬의 변화를 느꼈어요. 본능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지요. 며칠 동안 잘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후 햇살이 따뜻하던 날 모체에서 빌려온 작은 뿌리부터 힘을 내 다시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렸어요. 날카롭게 잘려 다시 흙에 심어진 제 밑동에는 모체에서부터 함께하던 작은 뿌리와 비슷한 뿌리들이 자라났어요. 엄마와 형제자매가 곁에 없어서 조금 서운했지만 홀로 담긴 화분에는 새로 자란 뿌리를 마음껏 뻗을 수 있는 공간과 영양이 풍부했어요. 농부는 항상 적당한 햇빛과 영양을 줘 저를 자라게 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들어설 무렵 부쩍 자라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꽃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여름

각자의 화분에서 열심히 자라난 형제자매들과 꽃시장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인연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오고 가며 우리를 들었다 놨다 열심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형제자매들이 먼저 사람들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사라지고 다시 며칠이 지났어요. 몸집이 작은 사람이 곁에 와서 쪼그려 앉더니 한참 동안 저를 요모조모 뜯어봤어요. 이내 신문지에 둘둘 말려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작은 사람의 작은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저를 책상 앞 창가에 올려두고 "필레아야 잘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창가에는 종류가 다른 식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개중에는 바싹 말라 죽어버린 화분도 있어서 조금 긴장하고 말았어요.

작은 사람은 저를 조금 더 넉넉한 토분으로 부지런히 옮겨주고 물을 흠뻑 줬답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흠뻑 준 나머지 제 물받침에 물이 잔뜩 고여버렸어요. 그는 개의치 않고 커튼을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큰 화분으로 옮겨져 물을 잔뜩 먹은지라 그날 밤은 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왔지만 작은 사람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농부의 비닐하우스에서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침이 오는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부스스 일어난 작은 사람은 "안녕" 하고 인사하더니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줬습니다.

가을

작은 사람과 동거한 지도 벌써 두어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계획적이거나 꼼꼼하지는 않아요. 느지막이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서 창가의 우리들을 쭉 둘러보고는 컴퓨터를 켭니다. 가끔 그릇을 가져와 컴퓨터를 보면서 무언가를 먹고 혼자서 크게 웃기도 해요. 그러다가 뭔가 안 풀린다 싶을 때면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곁으로 와서 시든 이파리를 정리하거나 물을 줍니다. 제게 물을 줄 때 작은 사람은 늘 콧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가끔은 영양제를 사 와서 화분의 가장자리에 푹 꽂아 두기도 해요.

아침저녁으로 환기를 해주기는 하지만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은 사람이 곁에 와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도 그의 귓가에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겨울

바람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작은 사람이 커튼을 늦게 열어주는 탓인지 저는 농부의 비닐하우스에서처럼 빠르게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자리가 편해졌어요. 저는 그와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듯 꼭 맞아가고 있어요. 그가 가끔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가끔은 목말라 죽기 직전에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까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여름에 동그랗고 단단한 이파리로 이 창가에 왔는데 요즘 이파리가 굽어가기 시작해요. 숟가락처럼 휘는 제 이파리를 보고 한숨을 쉬던 작은 사람은 휴대폰에 알람을 더 맞추더니 이른 새벽에 깨어나 커튼을 먼저 걷어두고 다시 침대로 비틀비틀 걸어가 안대를 하고 몇 시간을 더 자곤 해요. 덕분에 물과 양분을 소화하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간지럽더니 오늘은 뽁! 하는 소리와 함께 첫아이가 흙 위로 올라왔어요. 작은 사람이 무성생식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준다면 저는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 봄쯤에 독립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안대를 벗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제 아이를 보고 어떤 표정을 할지 정말 궁금해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글·사진 **임이랑** 《아무튼, 식물》《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저자, EBS FM 〈임이랑의 식물 수다〉 진행

무르익은 춤의 색, 꽃망울을 터뜨리다

발레리나 박세은

파리오페라발레 19/20 시즌 오프닝 공연.
샤넬에서 제작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CHANEL

박세은의 에투알 지명 소식에 '올 게 왔구나' 싶었다. 한국 발레의 역사를 새롭게 쓴 날로 평가할 만큼 전대미문의 사건이지만, 생각보다 놀랍지 않았다. 의외의 결과도, 이루지 못할 목표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로 행선지를 정할 때부터 그녀라면 에투알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했다. 그런 그녀가 꼭 10년 만에 파리오페라발레의 '별étoile'이 됐다. 에투알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의미처럼 발레단의 가장 높은 등급의 무용수를 지칭하며, 연차에 따른 승급이 아닌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명된다. 여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른 시즌을 마치고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은 박세은을 만났다. 귀국하자마자 이어진 여러 인터뷰에 다소 지친 모습에도 춤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다시 반짝였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해야 하는 인터뷰는 좀 어렵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발레를 알리는 일이니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파리에서의 10년, 쉬지 않고 올라서다

"6월 23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끝으로 20/21 시즌을 마쳤어요. 에투알이 되면서 공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 분장실이 주어지는 등 당장의 변화가 시작됐죠. 새 시즌이 개막하는 9월 '시즌 오프닝 행진Défilé du Ballet' 무대에서 왕관을 쓰면 정말 실감 날 것 같아요. 행진이 끝나고 새로운 에투알을 소개하는 2부 갈라 공연으로 〈에튀드Étude〉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기까지 박세은에게는 '콩쿠르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짧게는 1분 30초에서 길어야 10분 안에 자신의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 무대, 국내외 콩쿠르를 섭렵한 그녀는 준비한 춤을 무대에 펼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2007년에는 15~18세 젊은 무용수들의 등용문인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활동 반경을 해외로 넓혔다. 수상 특전으로 장학금을 받아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스튜디오 컴퍼니에 입단했다. 처음 약속한 기간을 넘겨 감독의 권유로 두 해 동안 활동한 그녀는 당시 국립발레단을 이끌던 최태지 단장의 추천으로 국내 무대로 돌아와 춤추게 된다. "한국 무대도 아무 때나 들어와 춤출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기회라는 최태지 단장의 뜻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특채로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면서 군무부터 주역까지 여러 역할로 무대에 올랐다. 국립발레단이 세계 무대에 선보이기 위해 제작한 창작 발레 〈왕자 호동〉(2009, 안무 문병남) 무대에 주역으로 데뷔했다. 한편 '콩쿠르의 여왕'이라는 명성(?)답게 로잔 콩쿠르 이후 3년 만인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발레 콩쿠르에 출전해 시니어 부문 여성 1위를 거머쥐

었다. 현재 마린스키 발레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는 김기민이 같은 해 주니어 부문에서 남성 1위를 기록한 대회다. 그즈음 한국인 최초로 파리오페라발레에 입단해 쉬제Sujet, 솔리스트까지 오르며 활약한 김용걸이 귀국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던 차였다. 박세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용걸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넓혀갔다. 학교에서 배운 바가노바 메소드Vaganova method, 러시아에서 정립된 발레 훈련법가 전부이던 그녀에게 김용걸의 춤은 새로웠고, 유럽의 춤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러 발레단의 문을 두드렸고, 네덜란드 국립발레에서 솔리스트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파리오페라발레의 공개 오디션 소식을 듣고 결정을 잠시 미뤘다. 실패하더라도 오디션에 도전하고 싶어서 무작정 파리로 향했다. 2등까지 채용되는 오디션에서 세 번째 칸에 이름을 올렸고, 극적으로 준단원 신분의 1년 계약을 맺었다. 2011년 8월이었다.

외국인 비율이 5% 남짓한, 35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발레단에서 박세은은 단단하게 성장했다. 이듬해 카드리유Quadrille, 정단원가 됐고, 2013년 승급 시험을 통과해 곧바로 코리페Coryphée, 군무 리더로 올라섰다. 그해 발레단에서 주목하는 앞날이 기대되는 24세 미만 무용수에게 수여하는 세르클 카르포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쉬제가 됐으니 쉬지 않고 매해 계단을 오른 셈이다.

"증명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 네 춤을 춰"

"프랑스 춤을 배우는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저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둘로 나뉘었죠. 감정이 없고 기술만 뛰어나다, 혹은 프랑스 무용수들을 제치고 정말 큰 무용수가 될 것이다. 저는 입단 때부터 캐스팅이 좋은 편이었어요. 준단원 시절에 주역급 배역인 〈돈키호테〉 '숲의 여왕'과 '거리의 무희' 언더스터디understudy, 돌발 상황 시 주연 배우 대신 투입되는 배우로 이름을 올린 적도 있죠. 입단 전 국립발레단에서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해요. 코리페로 승급한 뒤 바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파랑새 역을 맡았고, 카르포상도 받았고요. '나는 에투알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의심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인정받고 있고, 기회는 꾸준히 온다고 생각했죠."

〈백조의 호수〉 중 한 장면 ©Julien Benhamou/Opéra national de Paris

2014년 겨울, 박세은은 장 기욤 바르가 안무한 〈라 수르스La Source〉의 주인공 나일라로 캐스팅됐다. 1866년 초연된 19세기 발레를 복원한 작품으로, 크리스티앙 라크루아가 의상 디자이너로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 기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클래스에서 네가 에카르테écarté, 사선으로 다리를 높게 든 채 바깥쪽을 향하는 동작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묻어나는 느낌이 바로 나일라였다고요. 안무가가 저를 직접 캐스팅했다는 점, 동작 하나만 보고 숨겨진 표현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점이 무척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안무가가 원하는 해석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했

> '나는 에투알이 될 수 없을까?' 하는
> 의심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 인정받고 있고, 기회는 꾸준히 온다고 생각했죠.

죠. 발레단에 들어와 2011년 초연부터 군무로 수차례 공연한 작품이 〈라 수르스〉예요. 스토리·동선·안무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제겐 행운일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어요. 에투알이 되고 나서 장 기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네 춤을 춰'라고요."

하지만 마냥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었다. 쉬제가 된 후 고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2014년 브리지트 르페브르 후임으로 예술감독에 부임한 뱅자맹 밀피에가 불어넣은 새바람에 휩쓸렸다. 클래식 발레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새 감독과 호흡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에는 아녀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르의 작품 〈콰르텟 4번Quatuor n°4〉을 연습하던 중 동료의 구두 굽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2016년 2월 밀피에 감독은 단원들과의 갈등 끝에 사퇴를 선언했고, 오랜 시간 발레단에서 신임을 얻으며 무용수로 활동한 오렐리 뒤퐁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해 있던 승급 시험에서 박세은은 프르미에르 당쇠르Premiers danseurs, 제1무용수로 올라섰다. 그녀는 오랫동안 춤을 췄지만 비로소 프르미에르 당쇠르가 되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붙었다면서 "내 춤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이자, 승급 시험이 아닌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명되는 에투알이 된 것에 대해 "기다리고 인내한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했다. 6월 10일, 〈로미오와 줄리엣〉 오프닝 공연에서 그 시간들이 빛을 발했다.

"폴 마르크와 저는 원래 오프닝이 아니라 두 번째 공연이었어요. 다른 무용수의 부상으로 일정이 바뀌면서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맡게 됐죠. 사실 이미 6월 초부터 최상의 컨디션이었어요. 바로 공연해도 좋을 정도로 준비된 상태였죠.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 빨리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랫동안 공연을 못 하기도 했고요. 16일에서 10일로 공연 날짜가 일주일이나 당겨졌고, 본공연을 앞두고 7일에 프레스콜까지 한차례 경험했어요. 무대가 아주 편했어요. 그만큼 연습했기 때문이겠죠. 안 되는 동작 하나를 완성해 보겠다고 하루에도 20~30번씩 반복 연습했어요. 비밀인데, 그렇게 안 되던 동작이 마지막 공연 때는 되더라고요."

춤에 정답은 없기에

파리오페라발레를 지탱하는 전통을 꼽는다면 루돌프 누레예프의 유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훌륭한 무용수이자 안무가였던 그는 오늘날 파리오페라발레의 '클래식'을 정립했고, 대표 레퍼토리도 여럿 남겼다. 화려한 테크닉, 음악의 박자를 첨예하게 분할하는 안무, 그 위에 얹어지는 '프랑스식' 표현까지. "누레예프의 레퍼토리가 추고 싶어서 파리에 갔다"는 박세은의 회고는 허사가 아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박세은은 테크니션이었다. 스스로 어려운 동작은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테크닉은 이미 섭렵한 터였다. 하지만 에투알로 지명된 그 무대, 〈로미오와 줄리엣〉 속 박세은의 춤은 매혹적이었다. 그간 동작은 더욱 섬세해졌고, 호흡은 안정됐으며, 표현력은 무르익었다. 자신 춤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처음 프랑스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춤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

었어요. 그전까지 저는 언제나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라도 모든 테크닉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제나 결과도 좋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공연을 보고 알았죠. 제가 알던 춤이 전부가 아니며, 이렇게나 다양한 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에투알마다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요. 춤에 정답이 있지 않고, 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람마다 풍기는 오라aura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춤을 춘다면 저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8년 브누아 드 라 당스를 수상하며 파리오페라발레를 대표하는 무용수로 세계에 이름을 알릴 당시 그녀가 춘 레퍼토리는 조지 발란신의 〈보석Jewels〉이었다. 어째서 파리오페라발레의 무용수가 누레예프의 프로덕션이 아닌 발란신의 작품으로 후보에 올랐는지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박세은이라는 무용수가 파리오페라발레 스타일로 발란신을 추는 것이 아니라, 발란신이 이 작품을 창작했을 때의 의도와 해석을 이해하고 춤추는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작품을 더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신체가 만들어내는 선이나 테크닉보다는 초기에 이 작품을 많이 춘 수잔 패럴이 가진 매력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리허설 동안 코칭 선생님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영상을 보면서 오리지널리티를 연구했죠. 누레예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안무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단 있는 여성으로 그려져요. 그런 철학까지 파고들면서 작품을 준비했죠.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즐기는 편이고요."

1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저 성실하게 연습하는 학생이었다면, 박세은의 색은 그사이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라 수르스〉에서 박세은은 반짝이고 생기발랄한 파랑새이자 요정이었고, 저스틴 펙과 알렉세이 라트만스키의 컨템퍼러리 발레에서는 안무가의 뛰어난 뮤즈로 분했으며, 〈오네긴〉에서는 비로소 무르익은 연기를 선보였다.

"에투알로 꼭 춰보고 싶은 작품을 고른다면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지만 우선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꼽고 싶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한 작품이거든요. 공주 이야기라서 그랬을까요?(웃음) 주인공 오로라 공주만 빼고 이미 모든 역할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농〉은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체력이 받쳐줄 때 누레예프 버전 〈돈키호테〉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 발레는 국경과 인종, 피부색을 뛰어넘는 예술이죠.
> 저를 아시아인으로 통칭하기 전에
> 박세은의 춤을 먼저 봐주길 바라요.

추고 싶은 작품을 묻는 질문에 설레는 표정으로 목록을 줄줄이 읊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어느덧 발레계가 가닿지 못한 길을 개척한 선배가 된 박세은이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저는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랬다'고 경험을 공유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저도 힘든 때가 있었기에 네가 힘든 게 있다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저와 대화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땐 자주 나누면 좋겠고요.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도 제가 먼저 마음을 열면 웃어줘요. 모든 것이 제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본다. 쉬제 이후 박세은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에 붙는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 그리고 '최초의 아시아인 에투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중요할까 싶어요. 발레는 국경과 인종, 피부색을 뛰어넘는 예술인데, 그런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를 아시아인으로 통칭하기 전에 박세은의 춤을 먼저 봐주길 바라요. '최초의 아시아인 에투알',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제가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에투알이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 **김태희** 무용평론가 | 사진 제공 **에투알클래식**

백화점에 간 예술 작품

"나만의 오브제가 접목된 식기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아트페어나 공모전에 참여하며 조형 작업을 주로 해온 도예가 황지혜가 자신의 작품을 롯데백화점 강남점 4층에서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창작 공간으로 자리 잡은 신당창작아케이드의 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서울문화재단이 롯데백화점과 함께 공예가의 작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할 기회를 열어준 '에스스토어S-Store' 덕분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시가 취소돼 피해를 본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판매할 장소를 빌려주고,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에겐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서 황지혜 작가는 2분기 동안 최우수 판매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작품의 어떤 요소가 백화점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제 작품의 주제는 '바다 해海'와 '수풀 림林'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한데 모여 공존한다는 뜻의 '해림'이에요. 저만의 독특한 오브제를 머그에 접목한 조형적 요소와 유약이 중첩되게 흐르는 회화적 요소에 수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부각했어요."

바다에 서식하는 서로 다른 생명체처럼 다양한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작품들을 보면 마치 영롱한 바닷속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황지혜 작가는 "타 장르와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는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색다른 시도가 새로운 자극이 됐다"고 한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은 4%에 이르는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아트페어 같은 기존 판매 장소에서 벗어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기회가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저만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황지혜
작가

황지혜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했다. 주요 전시는 〈통인화랑 초대전〉(2019) 〈KCDF 신진작가전〉(2018)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는 공예트렌드페어 선정작가로 3회 전시를 열었으며, 제12회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대상, 제28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 우수상, 제5회 대만 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선 외 MINO국제도자공모전,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등에서 수상했다.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 글은《한겨레》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에 게재됩니다.

자연이 허락한 '큰 원'

"자연이 허락하고 관객의 기다림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9월 2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미술관 마당에서 계속되는 전시 〈헤일로〉를 두고 손미미 작가(사진 왼쪽)는 이렇게 설명했다. 장르를 확장하고 영역 간 경계를 허물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인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다. '헤일로'는 '해와 달에서 내려온 빛이 얼음 결정에 반사돼 하늘에 둥그런 모양의 띠를 형성하는 광학현상'이다. 빛을 반사해 헤일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작품의 핵심이다.

작품의 소재로 99개의 로보틱 거울 모듈과 미스트·태양·바람이 사용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어두운 실내에서 프로젝터 빛과 실안개로 정교하게 구현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던 전작에 비해 이번 작품은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태양의 조건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보인단다.

"그간의 작품들이 작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컨트롤됐다면, 이번엔 태양과 바람 등 자연의 비정형적인 반복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원이 그려질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작가가 만들었으나 자연의 협조가 없으면 결코 완성될 수 없죠."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실험한 그는 완성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이 충족돼야 하는 인간적 요소를 가미했다.

99개의 거울에 비친 빛으로 허공에 원을 그리는 방식은 각자의 방식을 삶에 투영하면서 조화를 이끌어내는 '김치앤칩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김치앤칩스는 손미미 작가와 영국인 엘리엇 우즈로 구성된 미디어아티스트 그룹이다. 한국과 영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피시앤드칩스의 이름을 본떠 결성한 김치앤칩스는 앞으로 10년의 바람을 이렇게 밝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뒤를 기대하며 또 다른 작품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손미미
작가

디지털 예술을 전공한 손미미는 물리학을 전공한 엘리엇 우즈와 함께 2009년 '김치앤칩스'를 결성했다. 〈라이트 배리어 세 번째 에디션Light Barrier Third Edition〉으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특별상을, 미디어 건축 비엔날레(2014)에서 미디어아트 부문 대상을 받았다.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2014~2016)로 활동했고, 기술과 예술의 미디어 축제 '다빈치크리에이티브 2014'에서 예술감독을 맡았다.

여름 끝물에 북한산에 오르면 저기 아래쪽 내려다보이네
피로움 조금, 슬픔 약간이 덩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업고서는
조금씩 가을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북한산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8.5km²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심에 자연경관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어 국립공원 산 중
가장 많은 연 600만 명 가까운 탐방객이 찾는 명산(名山)이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전문위원

기후 위기 시대의 축제 만들기: 미래를 향해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1 독립예술집담회 11th with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스튜디오창, 유튜브 생중계
사회 **채민**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편집위원
발제 **백교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강수정 서울환경영화제 사무국장
토론 **한윤미** 바람컴퍼니 창작자
김민수 독립기획자
동영상 youtu.be/kAATzspou_E

1998년 '독립예술제'로 시작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연극·무용·음악·퍼포먼스·시각·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축제이다. 올해 24회를 맞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1'은 8월 4일부터 29일까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 민간 문화예술 공간 10곳에서 열렸으며 80여 개의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이 참가했다.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에코프린지 위크ECO FRINGE WEEK'에는 독립예술의 이슈와 현안을 돌아보는 '독립예술집담회'가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렸다. 올해 집담회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의 예술과 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중 18일 진행된 '기후 위기 시대의 축제 만들기: 미래를 향해'를 소개한다.

발제 1 에코프린지, 친환경 축제 정말 가능할까?

백교희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은 예술가 선정 심사가 없고, 누구나 자유로이 참가하는 특성상 매년 대표 주제를 정하기 어려운 축제이지만, 올해는 '에코프린지, 인류세에 대처하는 예술 가이드'라는 제목을 내걸고 진행했습니다. 연초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스태프가 상당수 있었고, 이제 마음 편하게 예술만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위기감이 공유됐습니다. 저희는 홍보물을 덜 만들고, 현수막을 덜 사용하며 작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구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는 축제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서울시의 '비영리 공익사업 지원'에 선정돼 1년에 걸친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축제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인

'기후 위기 시대의 축제 만들기: 미래를 향해' 집담회 현장

종이·현수막과 배너·쓰레기·음식물 4개의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했어요. 올해는 굿즈를 위한 굿즈는 만들지 않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든 현수막으로는 카드지갑을 제작하고요. 이전에 제작한 에코백으로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굿즈를 당연하게 만들던 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축제성과 환경 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축제를 만드는 예술가·자원활동가와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 아티스트 인터뷰를 하며 에코프린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고요. '에코프린지 친환경 홍보물제작 가이드'를 만들어 홍보물 제작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환경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축제 공간 주변에서 제로 웨이스트나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공간을 표기한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목표인 '인류세에 대처하는 예술 가이드'는 완성된 형태보다는 모두가 참여해서 발전하고 다 함께 실천해 나가는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축제가 왜 친환경적일 수 없는지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축제 직전에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든지,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준비 과정에서 만드는 쓰레기 때문에 회의감이 컸어요. 올해 홍보물은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하고 수량도 최소화하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맞추기 힘들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덜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더욱 치밀하게 홍보물 제작을 계획하고 친환경을 우선순위에 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고 지친 스태프에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고 불편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올해는 작품 발표를 10곳으로 나눠 진행하면서 공간마다 비치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도 상당했습니다.

친환경 축제가 가능한지 물었을 때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어요. 차라리 축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도 얘기했고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해야 하는 축제의 가치는 무엇인지도 얘기를 나눴어요. 보편적으로 누리는 삶의 방식과 속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시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시도를 되돌아보고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린지의 방식입니다.

발제 2 친환경 페스티벌의 현재와 미래

강수정

서울환경영화제는 2004년 시작해 올해 18회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영화제를 개최하는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NGO입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축제여서 홍보와 확산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영화제와 차별점이 있었는지를 놓고 계속 반성했어요. 소소한 시도를 해왔지만 '환경적 축제' 부분에서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발령하면서, 전국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축제에 대한 반성이 생겼고요. 2019년 영화제에서는 쓰레기 없는 페스티벌을 목표로 '에코페스트 인 서울'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제작물·폐기물·다회용품과 자원활동가·스태프의 권리와 노동에 관한 '지구와 우리의 약속'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많이 줄였습니다. 쓰레기 69kg이 발생해 1인당 14g을 배출한 꼴이었고, 기존 페스티벌과 비교해 60~70%를 줄인 수준이었습니다.

2020~2021년은 영화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어요. 올해는

MBC와 공동 주최하면서 홍보 부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점이 대두했다는 생각에 '에코볼루션ecovolution'을 슬로건으로 정했어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상영을 시작했고, 감독과의 대화도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어요.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운영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제 영화제이고 모든 영화가 최초로 공개되다 보니 온라인 공개를 원치 않는 감독도 많아서 이틀은 극장에서 상영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선생님, 학부모 관객층이 두터워서 학교에서 단체 상영을 한다든지 소모임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요구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세계 청소년 교육 포럼에서는 모든 연사를 청소년으로 모셨어요. 청소년들은 본인을 멸종위기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른들에 대한 원망,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공포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불편한 축제'가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은 사람, 특히 청소년은 그런 부분에 필요를 느끼고 심지어 검증하고 있어요. 친환경 페스티벌로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에 다가가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영화를 보여드리고 관객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민수
독립기획자

한윤미
바람컴퍼니 창작자

발제 3 재난 시대, 춘천마임축제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가?

강영규

춘천마임축제는 2020년 춘천 중도에서 '치유의 숲'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중도는 남이섬의 4배 정도 되는 섬으로, 섬의 90% 이상을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파헤쳐 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8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약 100편의 작품 영상을 받아 50개의 모니터와 스크린을 설치해 송출하고 10인의 지역 무용수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중도의 자연이 10%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연한테 우리의 아픔을 묻어달라고 하는 형식이 창피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도에는 어떤 교통편도 없기 때문에 대절한 버스를 타고 파헤쳐진 공사 현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해요.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인간이 파헤친 공간과 자연 그대로의 자연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대부분 그런 시각을 못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서 작업하다 보니 스태프들 마음속에 자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밥도 다 나가서 먹고, 일회용품도 안 쓰고,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도 자연을 안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축제의 개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축제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예술성·축제성이 재난 시대에도 유효한지' '축제는 도시의 생태와 인간소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온라인 무대는 대체재로 작용될 수 있는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키워드는 '지구의 봄'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새의 지저귐이 사라진 '침묵의 봄'을 깨우는 것을 축제의 미션으로 설정했습니다. 환경에 축제는 가해자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현실성에 주목했고요. 몇만 명이 한꺼번에 즐기는 축제가 불가능하다면 세분화해서 영유아

를 등원시킨 엄마, 청각장애인, 버려져 있지만 예쁜 도시의 폐역 등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원래 5월에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는 봄·여름·가을로 분산해 진행합니다. '나쁜 짓'을 덜 하기 위해 올해 축제에서는 종이 인쇄물을 일절 만들지 않았습니다. QR코드로 정보값을 제공하고, 모니터를 활용해 축제 정보를 영상으로 내보냈고요. 수작업으로 입간판을 만들고 폐현수막에 직접 사이트맵을 그렸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기 공사 감독님과 전기선을 규격화하고 장치를 만들어서 축제에서 계속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연했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쇄물이 없으면 그로 인한 불편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먹을거리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아닐까, 다들 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무기력해졌는데요.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10개의 잘못을 하고 있다면 올해 2개, 내년에 2개를 안 하면 5년 뒤에는 진짜 '에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에코'를 기본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이나 이후의 고민은 전기와 물입니다. 전기는 발전차를 쓰거나 기름을 태워서 사용하는데, 한 개라도 '그린 스테이지'로 만들기 위해 축전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축제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지금 기업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개념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기업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민 발제 잘 들었습니다. '축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과, '조금 불편한 축제가 답이 아닐까'라는 화두를 주셨습니다. 축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나온 딜레마가 '덜 가해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축제는 예술가나 관객에게 조금 불편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토론자 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수 2020~2021년은 축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운영 방식을 고민하면서 참조한 롤 모델이나 해외 사례가 있는지, 혹은 반면교사 삼은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교희 해외에는 예술이 환경이나 사회 이슈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강수정
서울환경영화제 사무국장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2011년에 '아름다운가게'와 에코프린지를 진행했을 때는 축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더라고요. 환경 전문가인 협업 파트너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올해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수정 저희도 2019년에 에코페스트를 시도하면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후원사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바람에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던 활동가가 합류해서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다 보니 훨씬 활동가적인 마인드로 진행될 수 있었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규 인천 연수구에서 준비하는 축제에는 '지속 가능 감독'이 있더라고요.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되니 감독을 배치하고 명확한 역할을 주고 수치화해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미 프린지는 참여하는 예술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춘천은 지역 기반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것이 소비되고 제

채민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편집위원

백교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안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영규 인쇄물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는 예산을 지원한 기관에서 동의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올해 축제 담당자, 안전과 보건 담당자, 시청, 재단과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주무관님이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마임축제의 내용과 현장 기록을 봤을 때 방역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이고 축제는 당연히 개최하는 걸로 결정되더라고요. 행정이 현장에 간섭하지 않고 행정의 영역에서 멈춰주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축제나 야외 공연을 계속 진행하는 춘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김민수 저는 이번 프린지에 참여한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친환경 홍보물 제작 가이드를 받아보고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술가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에서 이런 얘기가 확산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술가 외에 자원활동가들과는 어떻게 나눴는지, 서울환경영화제에 여쭤보고 싶어요.

강수정 서울환경영화제 자원활동가는 그린티어라고 부르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 환경적인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물과 음료를 마실 때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죠. 그런데 작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올해는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채민 환경영화제를 18년 동안 하면서 환경에 대한 담론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변해 왔고 발전이라는 말을 붙일 만한지, 출품되는 영화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강수정 환경영화제에 발전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고민입니다. 사실 팬데믹·폭염·산불·해수면 상승 등의 이상 현상은 영화에서 예견한 부분인데요. 영화에서 경고했지만 이렇게 빨리 실제 상황으로 다가올지 몰랐던 거죠. 환경이 나아진다는 기대로 축제를 이끌어왔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더 암울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기업 참여는 딜레마입니다.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늘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할 기업을 걸러내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요. 환경 이슈가 있으니 지원을 많이 받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전히 영세합니다. 저희에게는 발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책임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교희 저희도 친환경 종이를 많이 취급하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기후위기 시대라서가 아니라 기업이나 공기관에서 친환경 종이인지 확인하는 규정이 생겨서 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가짜 수요와 공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저희도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어떤 것이 덜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덜 가해자, 덜 죄짓기

채민 축제의 관성은 사실 가치판단의 문제 같은데요. 포기하기 힘든 축제의 관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강수정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자원활동가와 스태프들의 노동력이었어요. 축제 기간에 바쁘기도 하고 담당 인력을 두면 본인들은 가욋일로 판단하고 소모된다고 여길 수 있거든요. 막내로서 일을 맡았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강영규 모두 안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인쇄물 만들지 않기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올해 한번 해 보니 인쇄물이 1개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면 다시 쓰거나 오래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떤 것을 시도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설정하고 매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과정 단계임을 인정하고 덜 죄짓는 방법으로 가자는 설정이었어요.

백교희 프린지에서 극복하기 힘들었던 관성은 홍보물이었어요. QR코드로 안내하려다 보니 접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북을 만들되 1,000원이라도 유료로 판매하고, 최소량만 인쇄해 기념품으로 갖고 싶은 분이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게만 드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축제가 양적으로 커졌음에도 인쇄량은 많이 줄였어요.

강영규 작년과 올해는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공연을 꼭 보고 싶은 분들만 와요. 이분들은 인쇄물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환경을 위해 인쇄물을 안 만든다는 것에 동의해 주십니다.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축제였으면 불만이 많았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라 올해는 인쇄물을 안 만들어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민 저는 친환경 축제가 축제 관계자들의 노동력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닌지, 손글씨를 쓰거나 설거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온 축제가 서비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영규 축제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노동환경은 어떤지 생각하고, 여유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인지, 최소한 도시락은 쌀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도 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근무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윤미 프린지에서 어떤 음식과 음료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지도를 만든 게 인상 깊었는데요.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건 메뉴,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지역과의 상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민수 어쨌든 시장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건 메뉴를 추가했더니 주목을 받는다는 경험치가 쌓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생기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백교희 올해 지역 식당이나 카페를 섭외하면서 스태프나 자원활동가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해 채식 식사가 가능한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알아봤어요. 가격대가 조금 높아도 채식 메뉴가 있는 곳과 협업하고 그런 식당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조약

채민 이제 토론을 시작할 때 써보기로 한 축제 조약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축제 물품 공유하기'입니다. 이제는 축제의 정체성 혹은 축제성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축제 물품 공유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상호 모니터링 혹은 지속 가능 감독 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 감독 혹은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 기관이 가지고 있거나, 지원금 필수 항목으로 편성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수원연극축제를 준비하면서 아티스트들과 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서에 없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참가 팀인 바람컴퍼니에서 제안했어요. 계약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예술가·자원활동가와 의제 나누기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미 한국거리예술협회에서 만든 '거리예술 표준계약서' 0.9 버전에 관련 조항을 보고 협조할 의향이 있어서 제안했습니다. 축제 조약은 '공연에 사용되는 음향·조명 등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혹은 체크해 보기'와 '친환경 파트너 식당, 비건 옵션 가능 식당, 비건 식당 혹은 카페 등의 네트워크 적극 활용하기' 입니다.

강수정 저는 함께 쓰는 축제 조약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조약을 제대로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만든 가이드라인,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 등 여러 시도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영규 올해는 인쇄물을 없앴다면 해마다 안 좋은 것을 하나씩 없애고 싶어요. 축제에 참여하는 아티스트·회사·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의미 있고, 지역 후원 가게들과 같이 실현하는 축제 생태계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포기 않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구가 우리를 먼저 포기할 것 같으니까요.

백교희 저는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의 위기가 인간종이 아닌 비인간 생명체나 자연을 후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인간 생명체가 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축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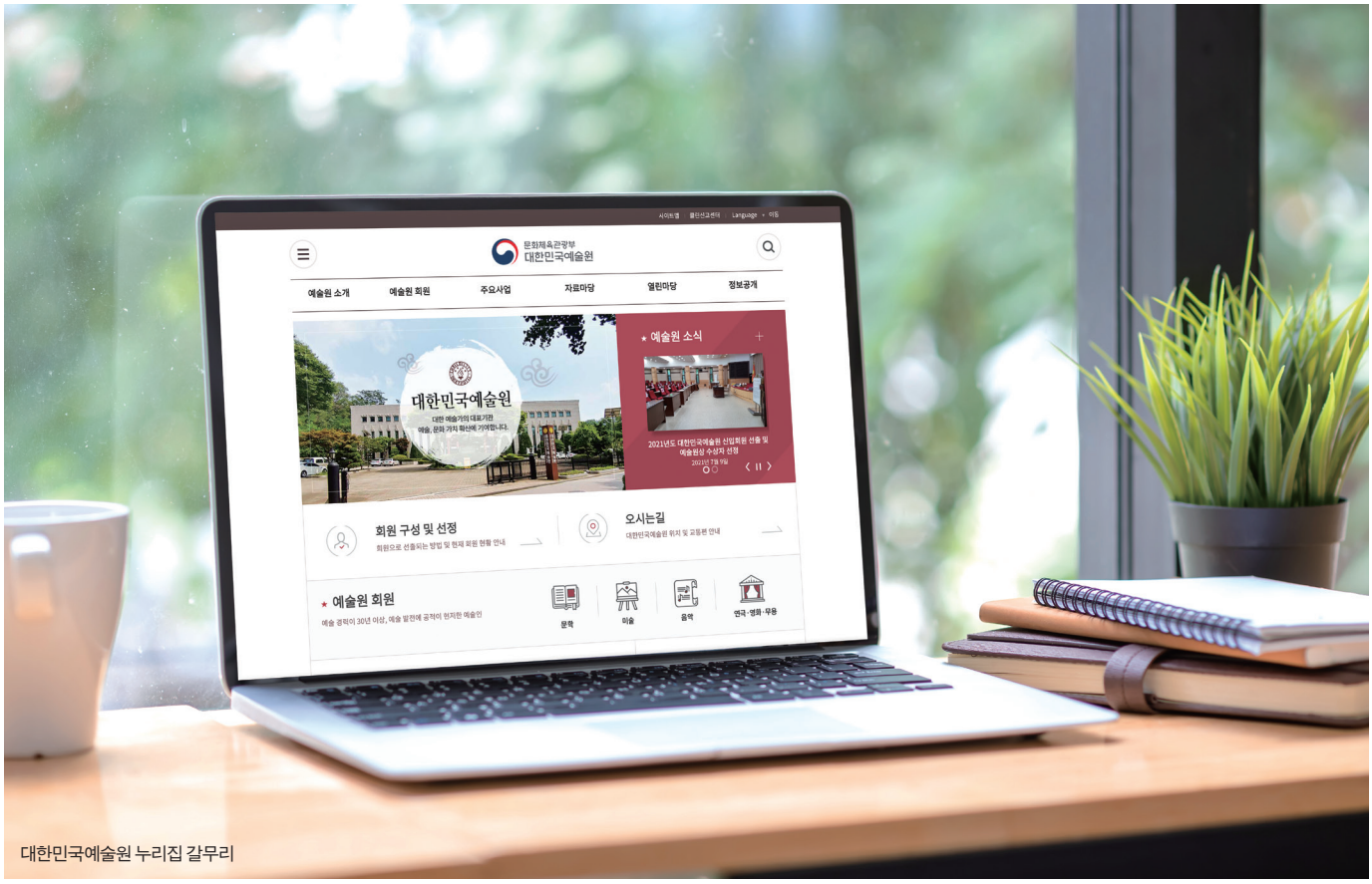
채민 오늘 쓴 축제 조약은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부장급’ 소설가가 쏘아 올린 예술원 개혁 신호탄

대한민국예술원을 비판한 단편소설

이기호 소설가가 대한민국예술원(예술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예술원 개혁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기호가 격월간 문예지《악스트》 2021년 7·8월호에 발표한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문학 분과를 중심으로 예술원에 제기되는 비판과 불만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보고서’ 형식의 소설이다.



대한민국예술원 누리집 갈무리

예술원을 둘러싼 목소리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에서 이기호가 지적하는 예술원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회원 상당수가 대학교수 출신으로 연금을 받는 처지에 예술원 회원으로서 매달 정액 수당 180만 원과 각종 회의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하다는 사실, 신입 회원을 선출할 때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친소 관계에 얽매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 현재 예술원이 하는 가장 큰 사업이라면 각 분야 원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상금 각 1억 원)을 들 수 있고, 강연회 등 행사 관련 예산도 책정됐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드물다. 예술원의 기능은 원로 예술가인 회원들에 대한 예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기호는 프랑스·미국·독일 예술원의 사례와 비교하며 대한민국예술원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를 참조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세 나라 모두 예술원 회원에게 정액 수당은 따로 주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회원들이 연회비를 납부한다. 세 나라 예술원의 사업도 공쿠르상을 비롯한 각종 상의 심사,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교육, 장학 프로그램, 창작 환경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이 회원인 원로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존재 이유로 삼는 반면, 세 나라 예술원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기호의 소설이 발표된 뒤 문단 안팎에서는 동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순원 소설가는 '대한민국예술원을 폐지하라'는 직설적 제목의 글을《한겨레》에 기고했고, 송경동 시인도 예술원을 비판하는 시를 실었다. 이시영 시인을 비롯해 적잖은 문인이 이기호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관련 기사가 나간 뒤 필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공감을 표한 문인도 여럿이었다. 물론 일부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이기호가 예로 든 세 나라(프랑스·미국·독일)에서 예술원 회원들에게 정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에 따르면 중국은 1년에 최소 3,000위안(약 50만 원)의 기본 경비를 지원하며, 일본은 연 300만 엔(약 3,100만 원)의 회원 수당을 지급한다. 보다시피 둘 다 동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이다. 장유유서라는 유교 질서의 영향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작가 대부분이 작가협회에 소속돼 있고 1급·2급·3급 등 급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 역시 그 연장이라고 이해할 법하다. 유럽과 미국의 예술원이 민간 설립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일본예술원과 대한민국예술원은 국가 주도로 설립돼 재원도 국가에서 충당한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 수당 제도 역시 일본을 본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07년 '제국미술원'으로 출발해 '제국예술원'을 거쳐 1947년 지금의 '일본예술원'으로 이름을 바꾼 역사에서 보듯 일본예술원은 국가(주의)의 짙은 그림자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 일본예술원을 모범으로 삼아야 옳을까.

예술원의 미래는?

예술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예우냐 지원이냐'가 자리 잡고 있다. 원로 예술인의 평생 공적을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할지, 아니면 원로 예술인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지의 선택이다. 예술원 회원 가운데에는 교수 출신이 아니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예술원 회장인 이근배 시인도 필자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평생을 가난 속에 예술 외길을 걸어온 원로 예술가에게 그 정도 지원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기호는 예의 단편소설에서 대부분 회원 정액 수당인 예술원 1년 예산이 32억 6,500만 원(2020년)인 데 반해 2021년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총 예산이 9억 6,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겹쳐서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 창작 이전에 심각한 생계 위협에 시달린다는 소식도 연이어 들려오는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예술원 문학 분과 회원인 김원일 소설가의 친동생인 김원우 소설가가 올해 예술원상 문학 분과 수상자로 선정됐고, 미술 부문에서는 창작 역량이 의심스러운 재벌 총수가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예술원상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기호는 스스로를 문단의 '부장급' 작가라 소개하며 "부끄러움" 때문에 예술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예술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번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기호가 쏘아 올린 예술원 개혁 신호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글 **최재봉**《한겨레》기자

남다른 젊음이 미술계에 불어넣은 활기

MZ세대 미술 시장 참여

MZ세대의 미술 시장 참여가 늘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정보를 쉽게 얻고, 빠르게 참여하고, 다른 이에게 정보를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추세가 가파르다. 작품을 구매하는 활동은 물론 전시 개최 단계에 직접 참여한다.

MZ세대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미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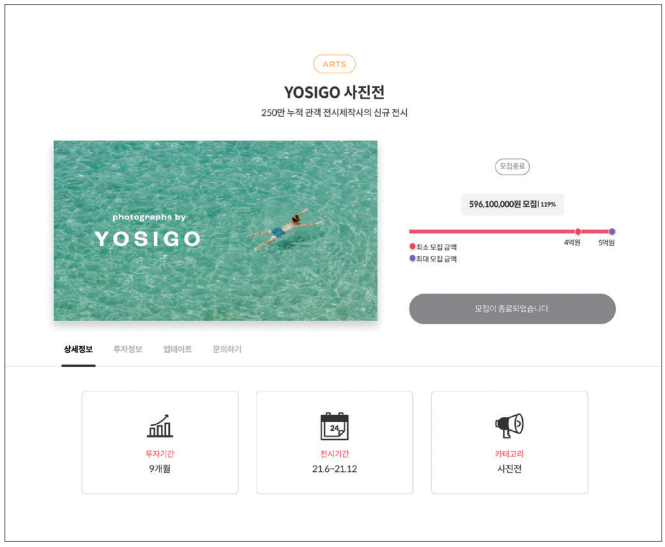
그림은 작가에게서 탄생하지만 누군가가 감상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과거 미술은 부유층의 전유물로, 일부 소수가 즐기는 고급 취미 정도로 여겨졌다. 미술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천만~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미술에 관심이 있더라도 미술관 혹은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술시장에 등장한 MZ세대는 이 같은 편견을 깨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여러 SNS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전시회 방문 및 작품 구매 인증샷이 이를 증명한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는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 미술관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작품을 보고 즐긴다. 이들은 스스로의 만족과 가치관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고전적 컬렉터 이미지 벗어던진 MZ세대

MZ세대가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등 미술에 관심이 많은 K-팝 스타의 영향이 없지 않다. 그들이 SNS에 다양한 미술 작품을 노출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미술에 대한 거리가 좁혀졌다. 'RM 투어'가 가장 대표적 예다. RM이 다녀간 미술관은 국내외 팬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우상 같은 아티스트의 취미를 공유하며 그들을 따라 하고 싶은 욕구와 미술품을 SNS에 자랑하며 '힙'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MZ세대는 유명인이 다녀간 미술관을 따라서 가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현대미술을 사랑하고, 컬렉팅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카페"라는 소개 글을 적은 네이버 카페 '직장인 컬렉터 되다'의 회원 수는 2021년 초 4,000여



문화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이 진행한 〈요시고 사진전〉 투자 프로젝트에 약 6억 원이 모였다.

명에서 불과 7개월 만에 8,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트페어를 비롯해 갤러리를 방문하며 작품 보는 안목을 키웠다.

다양한 작품 판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작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환경이 마련돼 미술 참여를 가속화하는 데 한몫했다. 대표적 방식이 한 작품을 여러 명이 공동 구매해 소유권을 나눠 갖는 '조각 투자'다. 실물 그림을 소유하진 못하지만 김환기·박서보 등 이미 수억 원이 넘어 구매하기 힘든 대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테리어로 사용할 미술품을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 빌리기도, 심지어 인스타그램에서 실물 확인도 안 하고 작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미 미술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된 MZ세대는 컬렉터 하면 연상되던 고전적 방식을 탈피한다는 특징도 있다. 수동적으로 전시를 감상만 하기보다는 직접 전시 기획에 투자·참여한다. K-콘텐츠 전문 펀딩 플랫폼 '펀더풀'에서 최근 펀딩을 진행한 〈요시고 사진전〉이 좋은 예다. 당초 모집 금액은 5억 원으로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펀더풀은 지난 6월 9일부터 22일까지 목표액의 119%에 해당하는 5억 9,610만 원을 달성했다.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술시장 규모 커지고 다양한 시도 늘어나다

MZ세대의 미술 참여는 미술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규모도 키우고 있다.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아트 바젤에서 발표한 '2021 아트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중국·멕시코 등 10개국 고액 자산가 그룹의 밀레니얼 세대가 작년 예술 작품 구입에 평균 22만 1,800달러(약 2억 5,900만 원)를 소비하며 전체 세대 중 최대 액수를 썼다.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MZ세대로 미술의 주요 소비계층이 변하고 있다. 국내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월 서울옥션 경매 거래 총액은 약 69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거래 총액 436억 원을 6개월 만에 160% 초과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는 MZ세대가 주로 구매하는 1,000만 원 이하 미술품이 전체 거래 미술품 중 과반인 59%가량을 차지했다.

젊은 세대의 참여로 미술계에 다양한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 예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예술품이다. NFT 아트는 실물이 아닌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시각예술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로 콘텐츠에 고유한 표지를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NFT 예술품은 올해 들어 단숨에 주목받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MZ세대의 관심은 뜨겁다. 경매사 크리스티에 따르면 올 상반기 NFT 경매에 등록한 고객 중 73%가 신규 고객으로 평균 연령은 38세였다.

국내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MZ세대를 사로잡는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술품 공동구매 업체 '피카 프로젝트'가 지난 3월 아티스트 마리킴의 10초짜리 영상 〈Missing and Found〉 NFT 작품을 6억 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갤러리에서는 너도나도 유명 작가를 앞세워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80년 넘는 전통을 가진 간송미술관도 젊은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국보 제70호이자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발행해 1개당 1억 원으로 100개 한정 판매했다.

미술계의 오랜 과제는 주요 소비층을 기존의 중장년층 이외에 다양한 세대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MZ세대의 미술 시장 참여는 그간 폐쇄적이던 미술이 더욱 다양해지고,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이 선순환해 미술계에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글 **김은비** 《이데일리》 문화부 기자 | 사진 제공 **펀더풀**

게임과 예술이 뒤섞이다

문화예술과 게임

게임업계가 문화예술에 손을 내밀고,
예술가도 게임에 발을 담그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클래식 음악·소설·미디어아트·전통예술, 장르를 가리지 않고 게임과 문화예술이 만난다.
국가도 인정하는 게임의 예술성이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내외 게임과 문화예술의 만남

지난 4월 공연계에선 〈리그 오브 레전드: 디오케스트라 콘서트〉가 화제였다. MZ세대가 열광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첫 콘서트를 공공 문화예술 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기획해 클래식 공연장에 '클알못'을 대거 불러모았다. 올해 출시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게임 그랑사가의 OST는 64인조 체코 필하모닉이 연주한 교향곡풍이다. 일본의 국민 게임 '파이널판타지15' 음악을 작곡한 세계적 거장 시모무라 요코를 비롯해 유명 엔지니어와 300여 명의 사운드 스태프가 그려낸 장대한 세계관은 그 자체로 예술이라 할 만하다. 게임과 예술이 뒤섞이고 있다.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지난해부터 미디어아트·웹툰·그림 언어·소설 등 네 영역의 창작자와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NC PLAY' 시리즈를 펼쳤고, 2021년 6월부터 대전시립미술관·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의 협력 전시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에서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한곳에서 선보이는 'NC PLAY'를 진행했다. 넥슨재단도 '전통예술과 게임의 만남'을 주제로 게임 IP를 활용한 실험적 공연 창작을 지원하는 공모전을 열고 있다.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게임업계는 홍보 차원에서 예술과의 협력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흐름이 부쩍 빨라졌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게임을 종합예술의 지류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문체부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산을 종합계획의 역점 추진 과제로 삼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범위) 규정에 '게임'을 포함해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해외에서는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게임을 예술로 인정했고, 국립예술기금이 2012년도 예술 프로젝트 보조금 분야에 게임을 포함했다. 게임의 예술성을 타 장르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의미로 게임 제작자도 다른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 문화부가 게임을 문화적 생산물이자 예술적 표현 양식으로 공식화하고, 게임산업에 세금 지원을 승인하고 게임 디자이너에게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일본도 '문화예술기본법'에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예술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는 것은 게임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게임산업의 성장은 눈부시다. 게임시장 분석 업체

1, 2 지난 4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클래식 공연이 열린 세종문화회관에서 9월에는 게임 '스타크래프트' 공연이 열린다

1

2

Newzoo에 따르면, 2017년 6.5억 달러 규모이던 글로벌 게임시장 매출이 2019년 약 11억 달러로 치솟았고, 2022년엔 18억 달러로 예상된다. 매출의 80% 이상을 광고와 스폰서십이 차지한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동시대 인기 높은 콘텐츠로서 게임의 경쟁력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게임, 예술계와 MZ세대와의 소통 창구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게임은 콘텐츠를 넘어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트래비스 스콧·BTS 등 유명 가수가 세계 최고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서 이벤트를 열어 대성공했다. 그러자 무대를 잃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까지 게임을 플랫폼으로 삼기 시작했다.

2020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메타 퍼포먼스: 미래극장〉이 대표적이다. 게이머가 밤을 꼴딱 새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공연도 어느 주말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밤을 새워 12차례 이어졌는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됐다. 오프라인 관객이 중계 카메라를 짊어지고 온라인 관객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면서 공연 깊숙이 들어가고, 온라인 관객은 소리꾼 2명의 만담 형식 해설을 들으며 마치 게임 방송 보듯이 공연을 관람했다. 온라인에 익숙한 MZ세대를 관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게임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했다. 문화재청의 궁중문화축전도 게임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궁을 세밀하게 구현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진입 금지된 건축물 내부를 탐험할 수 있게 해 호평받았다.

주목할 것은 게임이 MZ세대와의 소통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 블로거의 실화를 드라마화한 일본 드라마 〈빛의 아버지〉(2017)가 상징적이다. 사회 초년생인 주인공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내려 아버지를 국민 게임 '파이널판타지' 속으로 끌어들이는 구도지만,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거래처 접대 문화나 조직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내용이다. 게임 콘텐츠로 TV를 떠난 MZ세대를 다시 끌어들이면서, 그 자체로 신구 세대 소통의 플랫폼이 된 것이다.

예술계가 저변 확대와 폭넓은 향유 기회 측면에서 게임과의 접점을 적극 찾아야 하는 이유다. 세종문화회관 일반 공연을 찾는 관객의 80% 이상이 2030 여성임에 비해 '리그 오브 레전드' 콘서트 관객의 80% 이상이 2030 남성인 것만 봐도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공연 당일 세종문화회관 로비 팝업스토어에 늘어선, 굿즈를 구매하려는 남학생들의 긴 행렬이 암시하는 건 뭘까. 이제껏 본 적 없던 풍경이 새로운 예술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주고 있었다.

글 **유주현** 《중앙SUNDAY》 기자 | 사진 제공 **플래직**

축제는 계속된다

2021 〈서커스 캬바레〉와 〈서커스 캬라반〉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한 풍선을 매단 채 두둥실 떠 있는 서커스 텐트가
2021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포스터에 담겼다. 코로나19의 거센 회오리에 기우뚱 흔들리면서도
예술가는 관객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과연 서커스 텐트는 무사히 착륙해서 관객과 예술가의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코로나19 속 서커스 축제

2021년 7월 12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필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로 빽빽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 제일 먼저 '오늘의 확진자 수'를 검색한다. 일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많은 활동이 위축됐다.

2020년 절대 다수의 축제가 취소되거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됐다.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야 하는 예술가는 현장성이 다소 흐릿해지더라도 스크린 너머로나마 관객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올해도 많은 가을 축제가 취소나 연기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서커스 축제 〈서커스 캬바레〉와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캬라반〉 또한 그 고민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드라이브 인 서커스 방식에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한다.

〈서커스 캬바레〉는 2018년 시작해 국내 처음 선보이는 해외 작품과 국내 서커스 단체의 신작 위주로 구성하되 관객이 서커스를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전시 등을 포함하는 국내 유일한 서커스 축제다. 〈서커스 캬라반〉은 일반 축제와 달리 체험 프로그램·전시 등이 빠진 공연 중심의 행사로 하루에 4편 내외의 중소 규모 서커스를 공연한다. 2020년 '비접촉 대면' 형태의 '드라이브 인 서커스' 방식을 개발해 운영했는데 관객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예술가의 공연을 관람(대면)해 관객 간 접촉을 제한했다. 또한 회차당 2편을 편성하고 빠른 무대전환을 위해 이동식 무대와 크레인에 달린 서커스 텐트('프로젝트 날다'에서 제작한 서커스 텐트 모양을 한 무대 구조물)를 교차하는 방식을 취했다.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총 12회를 진행하는 동안 사전 예약 티켓은 1분 만에 모두 매진됐고, 전 공연 무료임에도 노쇼no-show,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는 10% 내외였다. 대부분의 관객이 "이렇게라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란 관람평을 쓴 것을 보면서 코로나19 팬

데믹 시기에 얼마나 공연 관람에 목말랐는지 알 수 있었다.

물론 '드라이브 인 서커스' 방식이 좋지만은 않았다. 차량과 무대의 거리가 멀어 각도에 따라 관람 시 시야 방해가 있었고, 공연자는 자동차 앞유리와 마스크로 인해 관객의 표정(반응)을 볼 수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언택트'가 돼버린 일상에서 대면 축제를 운영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축제 개최를 모색한다

그로부터 1년이 흘러 다시금 축제 개최 시기가 돌아왔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6월만 해도 가을에는 일상으로 복귀할 것 같다고 떠들썩했기에 예전 축제 운영 방식으로 계획했으나, 7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8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고 업데이트하며 어떻게든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단계별로 사용 가능한 공연 장소가 달라지고, 이는 관람 방법, 작품 선정 및 배치 등 축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도 수차례 회의하며 사안별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축제를 구성하는 주축 중 하나인 예술가(단체) 역시 혼란한 상황에서 많이 지쳤음에도 최선을 다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와중에 프랑스 서커스 단체 '갈라피아 서커스Galapiat Cirque'와 '데프락토Cie Defracto'는 백신접종 완료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며 초청에 응해 축제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렇듯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만큼 2021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및 시즌 프로그램도 무사히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올해 참여작 중 주요 몇 작품만 소개하고 싶다. 해외 참여작 '갈라피아 서커스'의 〈사랑의 기초〉는 의자를 이용한 밸런스 기예를 선보이는 작품이다. 닿을 수 없는 높이를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데프락토'의 〈크루뜨Croute〉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과 예측할 수 없는 몸짓, 어리석은 기교를 즉흥적인 저글링 퍼포먼스를 통해 선보인다. 국내 작품으로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상주지원 단체 '봉앤줄'의 〈스러지다〉와 '포스'의 〈아슬〉이 있다. 〈스러지다〉는 서커스 기예인 차이니스폴ChinesePole, 곧게 세운 외봉과 텍스트·오브제·사운드아트를 결합한 작품이다. '봉앤줄'의 초기작인 〈외봉인생〉이 봉을 세우는 과정을 담은 것이라면 이번 작품에는 봉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담았다. 〈아슬〉은 누구나 소망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차이니스폴·시어휠CyrWheel, 대형 훌라후프·아크로바틱·에어리얼 스트랩Aerial Strap 등 다양한 서커스 기예를 보여준다. '들꽃체육관'의 〈극동아시아땐쓰〉는 제1·2차 세계대전 전후로 급격히 개방되기 시작한 동북아시아의 카바레 속 여성의 삶과 몸짓을 에어리얼 후프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 밖에도 주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프닝을 보여주는 서커스 드라마 〈해프닝 쇼 "더 쉐프"〉(서커스 디 랩 작), 96년의 역사를 지닌 서커스단의 작품으로 국내의 근대 서커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초인들의 향연〉(동춘서커스 작) 등이 있다.

1 2020년 축제 당시 스카이 텐트의 이동 모습
2 2021 〈서커스 캬바레〉 & 〈서커스 캬라반〉 메인 포스터

글 **이현정**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홍보PD | 사진 **서울문화재단**

이용자가 실감서재 '검색의 미래'의 대리석을 터치하며 자료를 찾고 있다.

도서관이 살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하며 상설 체험관 실감서재를 만들었다. 이름대로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실감 나는 기술로 선보인다. 조선 시대 허준이 쓴 의학서《동의보감》에 그려진 사람의 배꼽이 씰룩대는가 하면, 테이블을 터치할 뿐인데 추천 도서 목록이 나열된다.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는 단순한 순간조차 뇌리에 각인될 만큼 실감 난다.

도서관은 온갖 종류의 도서와 기록물의 실물을 모아 보관하는 곳이다. 열람실 서가에 꽂혀 일반인도 접하기 쉬운 도서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된 귀중한 고문헌까지 규모가 방대하다. 실감서재를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유지현 주무관은 지금껏 모은 자료를 어떻게 하면 많은 이용객이 쉽고 재미있게 누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한다. 어린이도《동의보감》을 쉽게 읽는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실감서재에서 가늠할 수 있다.

미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는 크게 다섯 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수장고 영상' '검색의 미래' '인터랙티브 지도' '디지털북' 'VR 도서관'이다. 대체로 캄캄한 분위기의 내부 체험관에서 300인치의 화면에 움직이는 영상이 눈에 띈다. '수장고 영상'은 수장고의 미래를 상상한 모습을 대형 화면에 3D 영상으로 재생한다. 영상에는 로봇이 돌아다니며 서가에 빈틈없이 꽂힌 책을 점검하고, 민감한 종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검색의 미래'는 평범한 대리석 테이블과 프로젝터의 합작품이다. 천장

에 매달린 프로젝터가 대리석 상판에 영사하는 'START'를 터치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클래식 모드'로 일반 PC에서 볼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이다. 대리석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다른 하나 '인공지능 추천 검색'의 기본 구성은 마인드맵과 유사하다.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여러 키워드 중 예컨대 한국문학을 고르면 이어지는 선 끝에 유수한 작가의 이름이 제시된다. 작가와 책을 하나 고르면 표지가 전면에 나타나고, 옆에 이용자가 관심 가질 만한 연관 책도 추천한다. 맘에 들면 '내 서가'에 저장하거나 '대형 월로 보내기'를 터치해 '수장고 영상'을 재생한 대형 화면에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일곱 명이 대형 화면 앞에 모여 각자가 고른 책을 두고 대화 나누는 일이 가능하다. 대형 화면과 2~3cm 정도 떨어진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면 그에 따라 화면의 책이 이동하는 '에어 터치'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도서관 콘텐츠와 실감 기술이 만나다

TV와 비슷하게 생긴 '인터랙티브 지도'에는 〈수선전도〉와 〈진헌마정색도〉 두 가지 지도가 담겼다. 고지도는 지명 등의 정보가 한자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 현재 지명과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완성된 지도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인터랙티브 지도'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용자와 상호 작용해 옛 언어를 현대의 정보로 변환했다. 〈진헌마정색도〉에 적힌 한자 '環場환장' 위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돋보기를 올리면 "말을 몰아넣어 수효 점검, 말의 등급 구별, 낙인찍기, 병 치료를 하는 곳이었다"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손가락을 움직여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만질 때마다 말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양은 덤이다.

'디지털북'은 '검색의 미래'와 비슷한 구성이다. 천장에 매달린 프로젝터가 아래 놓인 대형 종이책에 《동의보감》과 《무예도보통지》를 영사한다. 대형 책은 실제 종이 재질의 물성을 지녀 이용자가 만질 수 있다. 영사된 지면에 "동의보감, 무예도보통지 중 열람하실 책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글이 보인다. 조선 후기의 무예 훈련 교범 《무예도보통지》를 고르니 책을 설명하는 글이 새로 적힌다. 다음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책처럼 손끝으로 책장을 넘겨야 이어진다. 실감 기술을 구현한 책에는 두 무사가 칼을 빼어 서로에게 달려드는 움직임이 담기며, 한자로 쓰여 읽기 어려운 원문은 한 번 터치하면 이해 가능한 한글로 번역된다. 먼저 방문한 이용자는 '디지털북'을 보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책을 실제로 봤다는 평을 남겼다. 책이 움찔거리며 이용자에게 읽어보라고 부추기는 듯하다.

입구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상상! 실감나는 콘텐츠 체험하는 도서관!"이 쓰여 있다.

마지막 'VR 도서관'이다. 가상현실 기기를 사용해 가장 먼저 독서하고 싶은 가상공간을 고른다. 왕의 서재·국립중앙도서관·바닷속 세 가지 가상공간에서 짧은 분량의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다. 아직 편히 읽을 만큼 기술을 구현하지 못했지만 e북 이후 등장할 'VR북'을 맛보기로 볼 수 있다.

유지현 주무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가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고문헌이 젊은 세대에게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발전한 기술을 사용해 영상도 만들고 재미있게 연출해 많은 이용자에게 다가가고자 실감서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이 방문해 실감 나는 도서관 콘텐츠를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감서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회차와 관람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안내 요원을 따라 미래 도서관의 윤곽을 체험해 보자.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예약 nl.go.kr
이용 오전 10시~오후 5시(회차당 40분 체험)
문의 02-3456-6169
휴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글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죽음을 상상하며 삶을 되새기다

연극 〈분장실〉과 뮤지컬 〈광화문연가〉

연극 〈분장실〉과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상상한다. 살아생전 무대를 갈망하던 유령이 분장실을 떠나지 못하고, 한 남자는 죽음 직전 옛사랑의 기억을 더듬는다. 지난 삶에 남겨둔 아쉬움과 그리움을 떠올려 골똘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죽어서도 죽지 못한 유령들

〈분장실〉 | 8. 7~9. 12 | 대학로자유극장

무대 뒤 '분장실'은 하나의 삶을 다른 삶으로 이동시키는 징검다리다. 배우 한 사람이 자신을 다른 '자아'로 덧입히는 곳. 새어 들어오는 박수와 환호, 아스라이 스며드는 조명, 분주한 스태프들의 발걸음처럼 심장이 나대는 곳. 조연으로, 단역으로 그리고 프롬프터prompter,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에게 대사 등을 일러주는 사람로 변장하는 곳. 분장실은 '순번'을 기다리며, 무대에 서기를 갈망하는 대기 장소다.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꿈이 겹겹이 쌓인 그 분장실은 누군가에게 '집'이다. 영원히 그 '차례'를 맞이할 수 없는 '유령'들에게 말이다. 대학로자유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분장실〉은 그 유령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왜 이들은 죽어서도 분장실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살아 있었다면 정말로 해보고 싶은 배역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그 '집'을 떠날 것인지.

연극 〈분장실〉에 출연한 서이숙(왼쪽), 배종옥 배우

일본 현대 연극의 거장 시미즈 쿠니오의 대표작 〈분장실〉은 1977년 초연 이후 일본에서 상연 횟수가 가장 많은 '국민 연극'이다. 여배우 네 명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공연이 가능한 단출한 구성도 장점인데,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세 자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공연하는 어느 극장의 분장실이 무대라 연극 애호가로부터 사랑받는다. 등장인물에겐 이름이 없다. 네 사람의 배역은 그저 A·B·C·D로 구별된다. A는 독재정권 시절 대학에 다니며 연극을 했는데, 남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끌려가는 바람에 줄곧 남자 역을 대신 맡았다. B는 〈갈매기〉의 '니나' 역을 늘 선망해 죽은 후에도 틈만 나면 니나의 대사를 읊는다. C는 마흔이 넘어서도 어린 니나 역을 줄곧 맡는 톱 배우지만 요즘 자주 대사를 까먹는다. D는 C의 언더스터디돌발 상황 시 주연 배우 대신 투입되는 배우인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돌아온 후 이제 젊은 자신에게 니나 역을 "돌려달라"며 C와 말다툼을 벌인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연극이라는 예술에 대해,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장실〉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언어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무대'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분장실〉은 그 인기만큼 일본에서도 다양하게 변주되는 작품이다. 배우들이 A·B·C·D 모든 배역을 돌아가며 연기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이번 신경수 연출의 무대가 종료되면 오세혁 연출의 남자 배우 버전 〈분장실〉이 시작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장실〉은 배경이 연극 분장실이고, 등장인물이 각자의 연기론을 펼치기에 연극 전공자나 관계자에겐 반드시 봐야 할 무대로 손꼽힌다. 후반부에 이르면 이 무대의 가장 큰 미덕이 드러난다. 지지부진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생과 사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준다는 것. 죽어서도 죽지 못한, 여전히 분장실에서 대기 중인 유령들이 던지는 "살아야 해!"라는 대사는 살아서도 살아 있지 못한, 인생이라는 무대의 숱한 A·B·C·D에게 돌직구처럼 날아와 박힌다. 이 모순적 풍경과 함께 다소 '파격적'으로 각색된 엔딩은 분장실 유령들에게도,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서이숙·배종옥·정재은·우정원·이상아 등이 출연하고, 남자 배우 버전은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연한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김호영, 윤도현 페어 공연

기억을 걷는 시간

〈광화문연가〉 | 7. 16~9. 5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삶과 죽음, 그 경계에 선 자의 '시간'이란 어떤 형태일까. 사라질까 부서질까 소중한 내세의 기억을 열심히 줍고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후기를 들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무대가 있으니, 이번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광화문연가〉다. 익숙하고 아련한 제목은 고故 이영훈 작곡가가 만든 가요에서 땄고, 작품은 이 작곡가의 음악들로 이뤄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광화문연가〉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로 활약한 배우 엄기준이 180도 바뀐 모습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는데, 사악한 미소의 악당 주단태가 서정적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떠올리기만 해도 흥미롭다.

〈광화문연가〉는 죽음을 앞둔 남자, '명우'의 생각 속에서 펼쳐진다. 그것은 기억을 찾는 시간이고, 놀라운 시간 여행이다. 안내자는 '월하'. 그룹 인피니트의 멤버 성규를 비롯해 김호영·차지연이 동시 캐스팅된 월하 역은 순정남 명우와는 대조적 매력을 발산하며 극을 이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명우는 그 사랑과의 첫 만남 장소로, 그녀와 함께 붉은 노을을 보던 육교 위로, 그녀를 휩쓸고 간 시위 현장으로, 환상·기억·현실의 교차점을 종횡무진 방황한다. 그때 그 시절의 어린 명우를 만나고,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첫사랑을 만나고, 이별의 상처를 보듬어줬던 새 인연도 떠올린다. 명우는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까. 우리가 죽어서도 잊고 싶지 않은, 알 수 없는 '저 세계'에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기억은 무엇일까.

'기억이란 사랑보다' '그녀의 웃음소리뿐' '광화문 연가' '옛사랑' 등 명우의 시간 여행 내내 함께 흐르는, 시적 가사를 품은 아름다운 넘버뮤지컬 삽입곡는 이 뮤지컬을 아련한 흑백영화처럼 만들어준다. 2017년 탄생한 후 단숨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광화문 연가〉는 아이돌과 스타 배우의 티켓파워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뮤지컬을 흥행시키는 가장 큰 힘은 '음악'에 있음을 증명한다. 고선웅 작가·이지나 연출·김성수 음악감독 등 공연계 유수한 제작진이 뭉친 만큼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다. 엄기준이 맡은 명우 역에는 윤도현과 강필석이 함께 캐스팅돼 번갈아 출연하며, 줄곧 남성이 연기한 월하 역에 차지연이 발탁된 것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젠더리스' 배역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글 **박동미** 《문화일보》 기자 | 사진 제공 **나인스토리, 샘컴퍼니**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통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책《우한일기》와《1984》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거닐거나 친구를 만날 자유가 박탈된 지 두 해째가 되면서 사람들은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지쳐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당장 생존 문제에 직면했다. 백신 수급을 포함한 종합적 방역 대책에 틈이 생긴 가운데 통제만 강조하는 게 해법일지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전과 자유의 균형을 생각할 시점에 읽을 만한 책 두 권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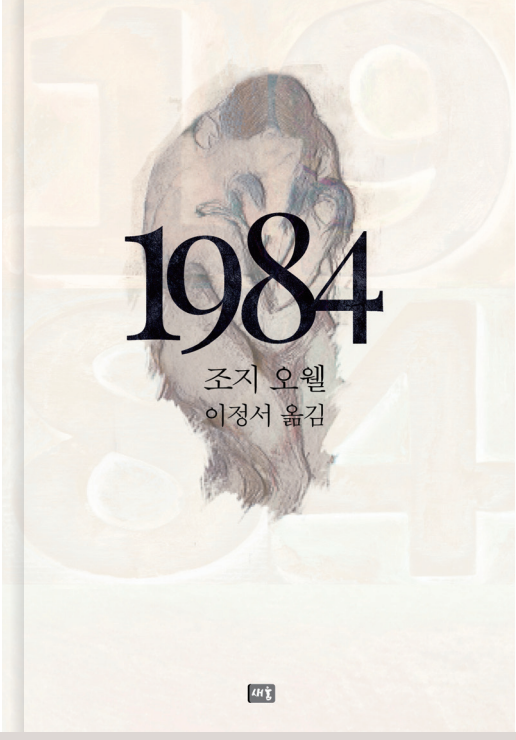
'중국의 양심'이 폭로한 우한 봉쇄의 참상

《우한일기》 | 팡팡 지음, 조유리 옮김 | 문학동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세계로 퍼진 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은 지 2년이 돼간다. 중국은 사태 초기 전염성과 증상이 심각할 것이란 정보를 자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피해는 이웃 국가로 번졌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당시 춘절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세계 곳곳으로 쏟아져 나가는 걸 허용하자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졌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한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인구 1천만의 거대 도시를 통째로 봉쇄했고 시민들은 갇힌 채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중국에도 '양심'은 존재했다. 의사 리원량을 비롯한 열사들이 바른말을 하다가 탄압을 받았다. 예술계엔 중국 신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팡팡方方이 있었다.

팡팡은 우한의 참상과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왜곡, 당국의 안이한 대



응과 시민의 절규를 매일 기록해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렸다. 부모가 모두 격리되자 집에서 굶어 죽은 아이, 치료 받지 못한 사람들, 장례도 못 치르고 비닐에 싸여 트럭에 실려 나간 수많은 시신 등 중국 정부가 은폐하려던 우한의 참상을 생중계했다. 책은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62일 만에 봉쇄가 풀릴 때까지 쓴 글 60건을 묶었다. 15개국에 출간됐지만 불행히도 자국에선 빛을 못 봤다.

팡팡은 상식이 사라진 사회, 정부와 권력자들이 거짓과 선동을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언제든 재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상식이 부족하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사회는 말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심지어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당신의 자유를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다

《1984》 | 조지 오웰 지음, 이정서 옮김 | 새움

20세기 최고 지성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조지 오웰의 대표작이다. 《동물농장》과 함께 '오웰 표'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명사인데, 팬데믹 이후 《1984》가 《동물농장》보다 더 많이 거론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소설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예언서로 여겨지며 세계 65개 언어로 번역된 명작이다. 고전이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를 담고 있어서다. 조지 오웰은 이 소설로 불가항력 재앙을 견뎌야만 하는 시민이 '자유'를 '안전'보다 하위 가치로 여길 때 국가가 모두를 통제하는 '감시 사회'가 시작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84》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 '빅 브라더'는 사상경찰과 첨단 기기를 활용해 모든 시민을 감시·통제한다. 팬데믹으로 각국 정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지금,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범죄가 되는 《1984》의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가 소설 속 나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중국에선 일당독재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시민들의 유전자 정보 등을 수집해 첨단 기기로 모든 일상을 감시 중이라는 폭로가 서구 인권단체들을 통해 쏟아지기도 한다.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팬데믹으로 빅 브라더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미권 주요 언론도 빅 브라더의 등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웰의 혜안에 감탄하고 있다.

글 **이승우** 《연합뉴스》 문화부 차장 | 사진 제공 **문학동네, 새움**

@BANZISU

구석구석 삶이 있는 염리동 풍경

마포구 염리동은 번화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작은 가게들과 나무가 울창한 공원,
서로가 친숙해 보이는 주민들로 가득하다.
골목 어귀의 작은 과일 가게에도,
방앗간 앞 마늘 트럭에도 익숙한 듯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어울려 살아간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런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들이 이곳을
얼마나 오래 지켜왔을까 궁금해진다.

글·그림 **반지수** 일러스트레이터

자극의, 자극에 의한, 자극을 위한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욕하지 않는 이유

김순옥·문영남·임성한. 한국 막장 드라마의 계보를 이어온 세 작가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매운맛 소재를 다루는 작가들의 신공은 여전하지만 이를 대하는 미디어와 대중의 반응은 달라졌다. 드라마의 개연성, 부적절한 대사나 장면을 비판하는 의견이 줄었다. 대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개'에 대한 찬사가 뒤따를 뿐이다.

한국 막장 드라마를 이끈 세 주역

한국 막장 드라마의 계보를 만들어온 대표 작가를 꼽는다면 김순옥·문영남·임성한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다. 임성한 작가가 1990년, 문영남 작가가 1991년, 김순옥 작가가 2000년에 데뷔했으니 모두 작가 생활 20년을 넘긴 중견 작가다. 지금이야 이들의 신작 드라마가 방영될 때마다 시청률 고공 행진을 예측하지만 미디어와 대중의 반응은 늘 긍정적이지도 않았다. 10년 전 드라마 〈아내의 유혹〉(김순옥) 〈조강지처 클럽〉(문영남) 〈신기생뎐〉(임성한) 방영 당시 쏟아진 기사의 헤드라인만 훑어봐도 이들의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막장 드라마, 이대로 괜찮나" "막말, 욕설, 핏빛 복수, 무속 신앙으로 얼룩진 안방극장"이라며 작가를 비판하기 바빴다. 2021년 현재까지 세 작가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사이 막장 드라마를 대하는 한국 미디어의 태도는 달라졌다. "믿고 보는 주말드라마 강자 문영남" "김순옥 월드, 확장은 어디까지?" "이번에도 먹힌 임성한 효과"라며 비난보다는 인기 요인 분석에 치중한다. 무엇보다 과거 TV 비평이 드라마의 개연성을 지적했다면 지금의 방송 리뷰는 발 빠른 내용 스포일링(기사 제목에 보란 듯이 범인 이름이나 반전 내용을 쓴다)과 시청률 보도, 재미있는 시청자 댓글 받아쓰기, 다음 시즌을 예측할 뿐이다. 10년 사이 반응이 이토록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주의 드라마를 써온 문영남 작가는 최근작으로 올수록 분열되는 가족 사이에 멜로와 스릴러 요소를 가미한다. 방영하고 있는 KBS 드라마 〈오케이 광자매〉는 엄마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주요 갈등 요소다. 물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는 불륜을 하고 또 누군가는 불우한 형편에서도 꿈을 좇으며 시청자의 심금을 울린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세대의 고난과 동생들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장남 서사는 문영남 작가가 주로 쓰는 가족극의 원형이지만 그 사이에 미스터리를 끼워 넣어 극에 물음표를 준다.

임성한 작가는 은퇴를 번복하고 필명 피비Phoebe로 돌아와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시즌2까지 끝냈다. 아마 그의 전작과 가장 다른 모양새를 갖춘 드라마가 〈결혼작사 이혼작곡〉일 것이다. 그의 전작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천륜에 어긋나며 천벌 받아 마땅하다"는 교훈을 준 것과 달리 신작은 오로지 누가 누구와 부적절한 관계인지, 부유층의 위선과 변명을 길고 긴 대사로 실어 나른다.

시즌3까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김순옥 작가의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역시 시즌마다 '주요 캐릭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서막을 연다. 드라마를 봤다면 알겠지만, 누가 누구를 왜 죽였는지는 중요하면서도 안 중요하다. 오늘의 선한 인물이 내일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악역인 줄 알았던 인물이 알고 보니 선량할 수도 있다. 오늘 방영분에서 죽은 인물이 진짜 죽었을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시청자 반응은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도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의 작가들은 개연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반전과 호기심 유발이다. 또한 포털과 유튜브에서 1분 영상만 보는 시청자에게 떡밥도 줘야 한다. "○○인 줄 알았던 오윤희의 믿을 수 없는 과거!" 자극적 섬네일을 달고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것 역시 드라마의 의무다. 지금 시청자와 작가는 대립항에 있다. 얼마 전 시즌3 방영을 예고한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드라마 내내 마주친 적도 없던 인물들이 재혼식을 올리며 시즌2를 마무리했다. 이 판에서 시청자는 어차피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 작가는 시청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퍼즐을 던져주지 않는다. "생각은 내가(작가) 할게, 당신(시청자)은 그냥 즐겨."

시청률 높으면 장땡

김순옥 드라마에서 낯선 캐릭터가 범인으로 밝혀져도, 임성한 드라마에서 뜬금없는 인물끼리 결혼해도 비판은 적다. 다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킬링타임용 드라마에 뭘 요구해? 재미있으면 됐지." "앞뒤 안 맞는 이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거야!" 이런 의견들이 지배한다. 김순옥 작가는 자기 드라마를 막장이라 폄훼하는 시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프고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라마를 보는 사이에는 고통을 잊게 한다는 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과거 막장의 요소가 자극적 장면을 이어 붙여 시청각적으로 빠져들게 한다면 지금 드라마는 더 빠른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TV 비평은 드라마에 '막장이 아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콘텐츠 전쟁에서는 시청자 눈길을 길게 사로잡는 자가 승자다. 전 세계에 판매되며 제작비가 몇 배로 커진 드라마 시장에서 실패하고 싶은 제작자는 없다. JTBC 드라마 〈SKY 캐슬〉 〈부부의 세계〉가 첫 회에 미스터리를 던지고 상류층의 욕망을 전시해 성공한 후 다수의 드라마가 그 방식을 취하는 이유다. 성공한 사례를 따라 해 '실패할' 가능성을 줄인다. '막장'의 요소가 시청률을 담보한다면 어느 드라마건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막장 드라마와 막장이 아닌 드라마 사이에는 변별성이 사라진다. 막장과 명품 사이에 변별성이 없다면, 일단 많이 보게 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지금 콘텐츠 시장의 정의이며, 정답이다.

글 **김송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SBS**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앞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동상 ©Yair Haklai

나날이 선명해지는 고전음악의 기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작품 중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은 〈아베 마리아〉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 전주곡과 푸가 1번 C장조 중에서 전주곡의 앞부분을 편곡해서 작곡했다. 구노는 바흐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모든 음악이 사라져도 그의 음악만 있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베토벤·드뷔시·말러도 존경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떤 음악가보다 포괄적 세계를 구축한 거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의 세계로 떠나본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1685년 3월 요한 암브로지우스의 막내아들로 튀링겐주의 아이제나흐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거리의 악사인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을, 큰아버지한테서 오르간을 배웠다. 9세에 양친을 잃은 바흐는 파헬벨의 제자인 맏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와 함께 오르도르프시로 옮겨 살며 본격적으로 작곡 기초를 배웠다.

18세에 학교를 졸업한 바흐는 1703년 4월부터 바이마르 궁정 악단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일하다가 그해 8월 아른슈타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가 됐다. 이때가 바흐가 오르간의 연주와 작곡에서 개성적 양식의 기초를 굳힌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그를 감독하는 성직회의와 자주 충돌했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독일 뮐하우젠으로 갔다. 뮐하우젠에서는 교회 오르가니스트로서 활약하는 한편 교회 칸타타의 작곡에도 힘을 기울여 칸타타 71번·131번·106번 등 초기 명작을 작곡했다.

바흐는 한때 악사로 일하던 바이마르로 돌아갔다. 이제 젊은 대가가 된 그는 바이마르 궁정 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됐다. 이때를 바흐의 바이마르 시대(1708~1717)라 한다. '오르간곡의 시대'이기도 하다. 바흐의 이름은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로서 독일에 알려졌다. 1714년에는 궁정악단의 악장이 돼, 매달 한 곡씩 뛰어난 교회 칸타타를 작곡했다. 바이마르 궁정에서는 당시 새로운 음악인 비발디 등의 협주곡이 즐겨 연주됐다. 이탈리아 협주곡의 형식과 기법은 이후 바흐의 작풍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717년 8월 바흐는 쾨텐 궁정에 악장으로 취임했고, 1723년 라이프치히로 옮겨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합창장)에 선출됐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간 이곳에 머무르며 교회음악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사실상의 라이프치히 음악감독으로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 시기 만든 걸작은 〈마태 수난곡〉 〈B단조 미사〉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약 160곡의 교회 칸타타 등 교회성악곡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은 라이프치히 시대 초기 수년에 걸쳐 작곡됐다고 한다.

바흐는 시의 당국자나 교회의 책임자와 자주 충돌했고 교회음악의 일에 점점 열의를 잃어갔다. 1724년 이후, 교회음악 창작은 급격히 줄고, 그 대신에 세속 칸타타나 세속적 기악곡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1736년경부터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전에 작곡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몇 편의 작품을 곡집 형태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출판했다. 건반악기를 위한 〈파르티타〉 〈이탈리아 협주곡〉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이 그 예다. 1747년 5월, 바흐는 포츠담의 궁정으로 프리드리히 대왕을 방문하고, 왕이 제출한 주제를 바탕으로 즉흥연주의 묘기를 보였다. 이것을 동기 삼아 작곡한 음악이 대왕에게 헌정한 〈음악의 헌정〉이다. 그리고 최후의 대작 〈푸가의 기법〉 작곡이 진행됐으나, 1749년 5월 뇌내출혈로 졸도한 바흐는 시력을 잃어 〈푸가의 기법〉을 완성하지 못한 채 1750년 7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바흐 사후 연주되지 않았던 〈마태 수난곡〉을 재조명해 무대에 올린 인물은 멘델스존이다. 20세기 이후에는 원전 연주의 발달로 바흐 작품의 연주에 여러 방법론이 시도됐고, 기존의 낭만주의적 해석의 반대급부로서 흥미로운 연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미뉴에트를 원작으로 한 사라 본의 〈A Lover's Concerto〉가 영화 〈접속〉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 자크 루시에 트리오는 바흐 작품을 아름다운 재즈로 연주해 사랑받았다. 언제 어디서 연주해도 생생함을 잃지 않는 바흐의 음악은 현재진행형이다. 바흐 연주법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면서 2000년대 이후 훌륭한 해석의 연주가 음반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래된 작곡가 바흐가 또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다가올지 기대하는 건 즐거운 일이다. 바흐라는 음악의 기둥은 늘 듬직하게 서 있었지만, 거기에 새겨진 문양은 나날이 선명해진다.

글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Wikimedia Commons**

마음을 놓아, 마음이 놓인 이야기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

척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무관심한 척, 그리고 괜찮은 척했다. 마음을 들키기가 끔찍해 애써 도망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과 제법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싫어한 선배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고, 무심하게 살아온 부모의 표정을 닮아가고 있다. 게다가 그저 귀찮고 번거로워 밀어낸 후배의 눈빛은 이렇게 시시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닮아가고 있다. 고작, 그런, 쓸쓸한 나를…….

나 혼자, 산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진아(공승연)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후 계속 전화를 하고, 신입사원 수진(정다은)은 필요 이상으로 친밀하게 굴어 귀찮게 한다. 어느 날, 진아는 출퇴근길에 복도에서 종종 말을 걸던 옆집 남자(김모범)가 혼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모르는 성훈(서현우)이 옆집으로 이사 온다.

진아는 콜센터 상담사다.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전화를 걸어오는 무작위의 진상들을 응대하는 일은 일상이다. 상대가 내 감정을 살피지 않듯, 나도 상대의 감정에 무심하다. 〈혼자 사는 사람들〉 속 주인공 진아는 애써,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밀어낸다. 그래서 얼핏 보면 혼자 사는 모습이 제법 익숙하고 편해 보인다.

하지만 혼자 있는 동안에는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고, 혼자 점심을 먹을 때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혼자 집에 남은 아버지의 행동을 감시 카메라로 관찰한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잠자는 시간에도 TV를 틀어놓고 TV가 잘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소통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과 단절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인다.

나 혼자서는 못 산다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는 않는 콜센터 전화, 온라인 세상, CCTV는 골 깊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홍성은 감독은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속내를 무덤덤하지만 온기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기 있는 목소리로 들려준다.

진아는 상처받기 싫어 스스로를 가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혼자 있고 싶지 않지만, 가족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계속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 가족을 방치하고 병에 걸려 돌아온 아버지에게도, 그런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간 엄마에게도 화를 내지 못한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하는 콜센터 일도 익숙하다.

그런 그녀의 생활을 뒤흔든 건 새로운 사람들이다. 혼자 있기 싫어하는 붙임성 좋은 신입사원 수진과 이사 온 성훈은 계속해서 진아에게 말을 붙여, 그녀와 마음을 이어보려 한다. 하지만 냉정한 말로 끝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만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자신이 입주한 집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남자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는 성훈의 마음이 진아에게 닿는다.

진아는 수진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자신을 방치한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무관심으로 놓쳐버린 관계들을 하나씩 풀어본다. 그렇게 닫힌 문이 삐죽 열리는 순간, 오래 묵은 마음의 원망을 놓아주고 진짜 혼자 사는 삶,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된다.

고여 있다 생각하지만 버튼 한 번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변기 물처럼,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함께라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지만, 담배 연기처럼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나눠야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을 놓은 곳에서 마음을 나눠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법이라는 사실도…….

〈혼자 사는 사람들〉(2021)
감독 홍성은
출연 공승연(진아 역), 정다은(수진 역), 서현우(성훈 역), 김모범(옆집 남자 역)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I·SEOUL·U

서울문화재단

2021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9. 3.(금) ~ 9. 5.(일)

문화비축기지

2021 서울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캬라반

9. 11.(금) ~ 9. 26.(일)

문화비축기지

협력 문화비축기지 후원

2021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거리예술 캬라반

9. 11.(토) ~ 10. 10.(일)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숲공원, DDP,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서울로7017

협력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숲컨서번시 ddp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Seoullo

Webzine+

비유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

연극in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

춤:in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

내 것이 아닌 이야기

"어릴 적에 나는 늘 혼자였어. 엄마 아빠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자정이 돼야 식당 셔터를 닫았고, 고학년이던 언니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으니까. 엄마가 미리 만들어둔 장조림이나 멸치볶음을 꺼내 밥을 먹고 상을 밀어 두면 할 일이 없었어. 언젠가부터 욕조에 물을 가득 받고 그 안에서만 놀았어. 물속에서 숨 참기 신기록을 세우거나 비닐봉지를 찰박이면서 생선 장수 흉내를 냈어. '한 마리에 천 원이요 천 원' 하면서 욕조에서 가족이 오기만 기다렸어."
다섯 살 터울의 동생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TV 채널이 몇 개 없던 시절이라 어린이를 위한 볼거리는 금세 끝이 났을 테고, 얼마 없는 장난감이나 인형도 며칠 사귀다 보니 좀 지겨웠을 거다. 참을 수 없이 심심했을 거다. 견딜 수 없이 외로웠을 거다.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을 잠그고 화장실 문까지 잠가야 비로소 안심이 될 만큼 그애에게 혼자 있는 집은 몹시 불안하고 무서웠을 거다. 20여 년이 지난 일을 동생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들려줬다.

아연이는 혼자 있을 때 현관문을 잠그는 걸 잊지 않았다. 도어록이 차라락, 하고 돌아가면 손을 한껏 뻗어 맨 위의 가로 쇠를 지른다. 둥그런 손잡이도 돌려서 잠근다. 그렇게 문을 세 번 잠그면 마음이 조금 놓였다. 가끔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 아무도 없는 척하려고 이불을 덮어쓰고 숨소리를 죽였다.
주애령, 〈하얀 밤의 고양이〉 부분

여기부터 아연이의 이야기. 학교 수업을 마친 아연이는 편의점에서 '1+1' 상품을 훑으며 배 채울 거리를 찾는다. 놀이터에서 술래잡기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때운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텔레비전과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본다. 지루해지면 케이팝 스트리밍을 켠다. 그렇게 늦은 저녁까지 견디면 엄마가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집이라는 공간은 으레 안온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아연이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얼마 전 이사를 해서 환경이 낯설기도 하겠지만 생활 자체가 퍽 달라졌다. 아빠는 새집에 오지 않았고 엄마 혼자 짐을 정리했다. 하나뿐인 방은 엄마의 인터넷 쇼핑몰 스튜디오 겸 물건 창고가 됐다. 거실은 텔레비전과 에어매트로 꽉 차고 노트북과 책상이 구석에 놓였다. 아연이 방도 침대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그림책들도 사라졌다.

학교 아이들은 가을 학기에 전학한 아연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아연이도 아이들이 무서웠다. 혹시나 아이들이 '월세 거지'라고 할까 봐 가슴이 얼어붙었다. 물론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한 아이는 없다. '그래도 그러는 애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웹진 [비유] 44호의 〈쓰다〉 포스터

아연이는 편의점에서 만난 부동산 아저씨가 "저 집은 월세야"라고 떠들고 다닐 것 같았다.
아빠와 따로 사는 것도 들킬까 봐 무섭다. 아빠가 없는 아이라고 소문나면 누군가 찾아와 붙들어갈 것 같다. 나쁜 데로 잡혀가면 어떡하지. 엄마는 돈도 벌어야 하고 힘도 약하다.

아연이는 나중에 직접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엄마도 담임선생도 이제는 글자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3학년인데 아직 그림책을 봐?" 하고 학교 도서관 사서가 물었을 때 아연이는 말문이 막혔다. 그림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곳은 아연이가 사는 신우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이다. 월셋집에 이사 온 게 처음으로 잘됐다고 여겨질 만큼 소중한 공간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하는 사이 아연이는 우연히 작은 도서관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엄마의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나 주말에 몰래 도서관에 들어간다. 그렇게 "작은 도서관이 다 내 방 같"다고 느껴질 즈음, 아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나타난다.

고양이는 천천히 일어나서 등을 우아하게 펴고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오늘밤 잘 보고 있어.
새카만 밤의 아기와
새벽달 같은 아기가 나올 거야.
그 아기들은 모두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고양이의 말이 끝나자 아연이는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고양이의 얼굴에 닿았다. 하얀 고양이의 얼굴은 북극여우처럼 부드럽고 차가웠다. 싸늘함이 손을 타고 올라와 팔과 어깨를 감고 온몸을 가득 채웠다. 마치 빙하를 들이마시는 것 같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서리로 변하는 그때, 창 밖에서 두툼한 눈송이 수만 개가 하염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고양이가 아연이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야기의 감촉은 일순간 달라진다. 아연이의 혼자 있는 시간, 외롭고도 아슬아슬한 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시간을 하얀 고양이는 지켜보고 있었노라 말한다. "난 네가 누군지 알아. 매일 밤 여기서 그림책을 펴고 소리를 내어 글자들을 읽었지." 눈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아기 고양이들, 곧 있으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아연이의 속삭임, 도서관 바깥의 겨울 이미지가 뒤섞이면서 작품의 후반부는 부드러운 젤리처럼, 흐르는 물처럼, 한 편의 시처럼 진행된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 아연이에게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단단함이 느껴진다.
빠져나와 끝으로 나의 이야기. 어린 동생의 욕조 이야기도 아연이의 하얀 고양이 이야기도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이다. 철저히 혼자였던 유년의 어둠을 비추기 때문이다. 조명된 그 자리를 짚을 때 비로소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내 것 아닌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게 한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하얀 고양이가 말해 줄 거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글 **남지은** [비유] 편집자 |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연극in

추락의 경로, 혹은 길 잃기의 경로

프로젝트그룹 빠-다밥 〈추락 II〉

프로젝트그룹 빠-다밥의 연극 〈추락 II〉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쉰두 살의 대학교수 데이비드 루리는 지금껏 쌓아온 것 모두를 송두리째 잃는다. 그야말로 추락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상대 학생, 아이삭스의 진술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노라 말한다. 진술서는 읽지 않는다. 아이삭스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도 무마할 수 있다는 동료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그는 대학을 떠나기로 한다. 아이삭스의 진술, 혹은 본심은 관객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루리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끝이 좋지 않게 돼버린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 황혼이 머지않은 50대 이혼남이 아니라 에로스의 노예라는, 그러나 절제할 수 없어 저지른 일은 아니라는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항변하지 않는다. 이로써 사회·제도·문화 따위를 단번에 비웃는다. 그렇다면 이 추락은 거짓이거나 다른 사건을 경유한 일이다.

선택을 이해하기

이제 전직 교수가 된 루리의 딸, 루시 루리는 이주해 들어온 이들의 공동체가 붕괴된 후에도 마을의 유일한 백인으로 남아 개척 농장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다. 데이비드 루리가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 루시 루리는 집을 습격한 괴한들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경찰에는 강도가 들었다고만 신고하지만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사랑이 싹틀 거라고, 낳겠다고 말한다. 모성애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한다. 땅을 노리는 옆집의 페트루스와 결혼하기로 한다. 세 번째 부인쯤이다. 땅을 주고 안전을 사는 거래다.

루리가 진정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마 이 대목에서다. 딸을 '존중'해 농장을 마련해 주던, 이제는 농장을 접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도록 딸을 설득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추락이다. 더 깊이 생각하면, 제도를 비웃으며 자유로운 개인이 됐지만 다른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패한 개인으로서의 추락이다. 루리가 비웃을 수 있던 세계가 루시에게는 비웃기는커녕 맞서 싸울 수조차 없는 상대다.

루리가 역사 밖의 개인으로서 사태를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할 때, 루시는 역사 속의 개인으로서 사태를 경험한다. 루시는 외롭고 철저한, 자유롭지 않고 힘없는 개인이다. 역사에 속하지만 역사의 일부는 아닌, 역사에 속하지만 자신의 자리는 갖지 못한, 하지만 언제나 개인 대 개인으로서 역사를 겪는다. 그렇다면 내가, 혹은 루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루시의 선택이 아니라 루시의 존재 지평 그 자체다.

루시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 어디로든 떠나라는 루리의 제안을 거절한다. 지금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철저히 혼자일 이곳에 남기로, 철저히 혼자서 결정한다. 페트루스와의 거래를 받아들이며, 땅은 넘겨도 좋지만 집만은 자신의 것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말한다. 낯선 곳으로 들어와 직접 일군, 유일한 자신의 자리다. 어쩌면 외로워도 괜찮은 유일한 자리.[1]

읽기를 방해하는 몸들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본다. 진상조사위원회 가운데에 루리가 앉아 있다. 조사위원의 말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다.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세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들을 연기하는 것은 여성의 몸이거나 남성의 몸, 장애인의 몸이거나 비장애인의 몸, 한국계의 몸이거나 외국계의 몸이다.(엄격히 말하자면, 실제로 그러한 몸인지는 물론 알지 못한다. 내가 배워온 기준으로는 겨우 외관만을 참조해 판단하기로, 그렇게 분류될 법한 몸들이다.)

백인 남성으로 그려지고 한국인 비장애 남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정상의 기준에 가장 가까운 몸을 그렇지 않은 몸들이 심문한다. 몰래 혹은 공공연히 그를 응원하는 것 역시 그런 몸들이다. 이 몸들이 무엇을 연기하고 있는지(어떤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연기하고 있는지, 그 몸의 장애 여부는 어떠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무대 위에 제시되는 것들은 이 짐작에 쓰기에는 부족하거나 넘친다. 판단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다. 극 중 인물이 어떤 몸을 가졌는지를 식별하려 들지 않거나, 상상된 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

이 모호함 혹은 풍성함은 어쩌면 내가 모르는 지평에 가닿을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라지는 몸들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몸들을 생각했다. 무대에 모습은 비치지만 제 언어를 갖지 못하는 몸들, 무언가 말해도 언제나 다른 이의 다른 말이 따라붙고 마는 몸들을.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제도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이후의 흑백 대립을 다룬 원작이나, 공연 소개에 차별금지법과 트랜스젠더 혐오 등을 언급한 이 공연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현실과 개인의 대립을 읽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고했던 힘의 질서가 휘청일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단 혐오와 증오들이 날을 세워 일상 가득 금을 긋는다. 그어진 경계를 허무는 일은 위협과 공포로 다가온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라는 공연 소개의 질문을 마주하며 어떤 의미에서의 '우리'에 나를 대입해야 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글 **박종주** 대학에서 문학과 미학을 공부했고 같은 기간 몇몇 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몇 개의 창작집단과 사회단체를 통해 창작자나 연구자,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주로 예술과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사진 제공 **프로젝트그룹 빠-다밥** ©보통현상_김솔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됐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그룹 빠-다밥 〈추락II〉
일자 2021.7.9(금)~18(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원작 J.M.쿳시-DISGRACE
번역 황은철 각색·연출 김한내
출연 이윤재·이세영·윤현길·마두영·신강수 이송아·김민희·Anupam Tripathi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강지혜
의상디자인 홍문기 음악·음향디자인 배미령
음향감독 김나연 영상감독 김성하
그래픽디자인 황가림
조연출 이효진·김민희 사진촬영 김솔
영상촬영 김지은 프로듀서 김민솔
배리어프리공연 (주)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춤+여기

끝나지 않는 게임처럼 결코 정복되지 않는, 끝없는 발레의 매력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진수

웹진 [춤:in]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진수입니다. 서울발레시어터를 소개할 때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창작 발레의 자존심을 지켜 가는 단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발레시어터는 초대 단장 김인희, 상임안무 제임스 전, 예술감독으로 로이 토비아스가 참여하며 1995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대 대표로 제가 취임해 민간 발레 단체로 2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창작 발레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해외에 작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매년 1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하던 규모 있는 단체였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창작 발레의 자존심을 지키고 단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발레썸'이에요.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발레와 썸을 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공간이죠.(웃음) 실은 처음엔 과천에서 더는 상주단체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나갈 공간을 찾다가 이곳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1년 더 과천에서 머물 수 있게 됐고, 막상 와보니 저희 단체가 연습실로 쓰기에는 생각보다 좁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곳을 잠재적 발레 관객이자, 발레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가까이 만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중과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발레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곳은 직접 관객과 만나는 공간이자, 저희 단원이 교육하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처음으로 무언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매진하는 순간 보이는 눈빛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곳에서 발레를 배우는 분들에게서 그런 눈빛을 자주 접하는데요. 발레를 못한다고 해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거나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와 열심히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세 클래스, 네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도 있죠. 어쩌면 발레의 미래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이에게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발레의 세계로 안내하는 거죠. 이곳에서 발레를 사랑하는 열정 가득한 분들을 만나면서 발레단 단원도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레를 전하고, 또 발레와 새롭게 만납니다. 발레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발레는 게임 같아요. 라운드를 깨고 깨도 끝나지 않는 점이 그렇죠. 절대 정복이 될 수 없어서 더욱 재밌습니다.(웃음)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최진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은 21세 때부터 유니버설발레단과 서울발레시어터에서 14년간 무용수로 활동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안무자로 대한민국발레축제·창작산실·서울무용제에서 활동했다. 한국발레협회 신인안무가상을 수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2018년 취임했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됐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레썸스튜디오 ©Kenn. 김병구

2021
Calendar

09

Mon	Tue	Wed
		1 ● 공연 〈에드윈 킴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강유선 피아노 독주회〉 ● 무용 〈학, 하늘을 날다〉 ● 연극 〈암탉을 찌른 칼〉(~9. 5) ● 연극 〈트루먼쇼〉(~9. 5) ● 연극 〈하녀들〉(~9. 5) ● 연극 〈산난기〉(~9. 12) ● 연극 〈예라고 하는 사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9. 12) ● 전시 〈극장, 안전한 공간〉(~9. 12) ● 전시 〈초연〉(~9. 12) ● 전시 〈극장에 대한 소문(小文)〉(~9. 4) ● 전시 〈연결악보〉(~9. 30) ● 전시 〈언와인딩 에코〉(~9. 30)
6 ● 공연 〈최소윤 피아노 독주회〉	**7** ● 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강세라 & 안희정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 공연 〈나재령 플루트 독주회〉 ● 무용 〈2021 SDP국제페스티벌〉(~9. 11) ● 연극 〈윱눞: 뒤집다〉(~9. 17) ● 뮤지컬 〈하데스타운〉(~2022. 2. 27) ● 전시 〈Selfish Art-viewer: 오늘의 감상〉(~9. 26)	**8** ● 공연 〈유채훈 & 라 벤타나〉 ● 무용 〈탄생의 신, 삼심〉(~9. 9) ● 연극 〈청춘 백수원〉(~9. 12) ● 연극 〈원스 인 어 블루문〉(~9. 12) ● 연극 〈인간〉(~9. 19) ● 연극 〈아싸〉(~9. 19) ●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11. 28) ● 뮤지컬 〈트레이스 유〉(~11. 28) ● 전시 〈타이밍…ing〉(~10. 10) ● 전시 〈극장에 대한 소문(小文)〉(~9. 12)
13 ● 공연 〈최경아 피아노 독주회〉	**14** ● 공연 〈김수연 바이올린 독주회〉 ● 연극 〈인싸이드〉(~9. 19) ●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11. 21) ●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11. 21)	**15** ● 전시 〈BVLGARI COLORS〉(~9. 15) ● 공연 〈2021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 연극 〈고백〉(~9. 16) ● 뮤지컬 〈홍보전〉(~9. 21) ● 뮤지컬 〈미인〉(~12. 5) ● 뮤지컬 〈웨딩 플레이어〉(~12. 26)
20 ● 뮤지컬 〈해적〉(~10. 3)	**21**	**22** ● 전시 〈무민 75주년 특별 원화전〉(~9. 22) ● 연극 〈쓰레기섬〉(~9. 24)
27 ● TBS 문학 캠페인 〈문학에 물들다〉(~10. 29)	**28** ● 공연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내한 공연〉 ● 연극 〈외출〉(~10. 3)	**29** ● 연극 〈G급감성〉(~9. 29) ● 공연 〈이효원 비올라 독주회〉 ● 공연 〈스타크래프트 라이브 콘서트〉(~9. 30) ● 연극 〈위험한 관계〉(~10. 3)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u	Fri	Sat	Sun
2 ● 공연 〈피아니스트 원재연 리사이틀〉 ● 공연 〈힉엣눙크 페스티벌〉 ● 공연 〈봄봄〉(~9. 4) ● 연극 〈신데렐라〉(~9. 12) ● 연극 〈집집〉(~9. 17) ●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9. 19) ● 연극 〈드립소년단〉(~12. 31)	**3** ● 무용 〈a는 A의 원소이다〉(~9. 5) ● 연극 〈공포가 시작된다〉(~9. 12) ● 연극 〈천만 개의 도시〉(~9. 19) ● 연극 〈템플〉(~9. 29) ● 축제 〈2021 서커스 카바레 & 카라반〉(~9. 26) ● 전시 〈코로나 위장-움직이는 매개자〉(~9. 9)	**4** ● 공연 〈사사로운 대면의 음악상담소_ 나의 가사는 너의 이야기〉 ● 공연 〈펑.펑.펑-대신 울어드립니다〉 ● 무용 〈거시기모놀로그〉 ● 무용 〈굿 마른오구〉 ● 연극 〈밑바닥에서〉(~9. 19)	**5** ● 공연 〈Crump: Stand up underground〉 ● 뮤지컬 〈모비딕〉(~9. 5)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9. 5) ● 연극 〈렁스〉(~9. 5) ● 연극 〈일리아드〉(~9. 5) ●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9. 5) ● 연극 〈두들팝〉(~9. 5) ● 뮤지컬 〈광화문 연가〉(~9. 5) ● 뮤지컬 〈판〉(~9. 5) ● 연극 〈믿을지 모르겠지만〉(~9. 5) ● 공연 〈푸푸 아일랜드〉(~9. 5) ● 연극 〈올모스트 메인 2〉(~9. 5)
9 ● 연극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9. 12) ● 연극 〈심청전을 짓다〉(~9. 19) ● 연극 〈한 명〉(~9. 19) ● 연극 〈소라별 이야기〉(~9. 26) ● 공연 〈격려가 될 만한 짧은 이야기〉(~9. 10)	**10** ● 공연 〈소프라노 이정은 독창회〉 ● 공연 〈스무가지 시인의 사랑〉(~9. 11) ● 연극 〈임지윤의 하루〉(~9. 12) ● 연극 〈도깨비 춤춘다〉(~9. 12) ● 연극 〈협상1948〉(~9. 19) ● 전시 〈떼려야 뗄 수 없는〉(~10. 29)	**11** ● 공연 〈Dream On Dream〉 ● 공연 〈일렉트릭 사이드 2021〉 ● 공연 〈윈드 앙상블〉 ● 국악 〈국립창극장 완창판소리〉 ● 공연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 ●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10. 31) ● 공연 〈2021 거리예술 카라반〉(~10. 10) ● 무용 〈쇼타임〉	**12** ● 공연 〈Ambitious GiRLS Rock Vol.3〉 ● 뮤지컬 〈박열〉(~9. 12) ● 연극 〈분장실〉(~9. 12) ● 뮤지컬 〈V 에버 애프터〉(~12. 5) ● 전시 〈라이프 사진전: 더 라스트 프린트〉(~9. 12) ● 공연 〈극장토론 3.15〉
16 ● 공연 〈클래시네마〉 ● 연극 〈에어플레인 모드〉(~9. 18) ●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9. 26)	**17** ● 뮤지컬 〈조선 삼총사〉(~9. 19) ● 뮤지컬 〈소믈리에〉(~9. 25) ● 전시 〈변화율〉(~9. 17)	**18** ● 공연 〈목목목 Gathering〉 ● 공연 〈피아니스트 정다슬 리사이틀〉 ● 공연 〈윤해원 첼로 독주회〉	**19** ● 공연 〈성현경 바이올린 독주회〉 ● 연극 〈러브 송〉(~10. 3) ● 연극 〈분장실〉(~10. 31)
23 ● 전시 〈오리엔탈의 빛-쿠사마 야요이 특별전〉(~9. 23)	**24**	**25** ● 뮤지컬 〈도서관에 간 사자〉(~9. 25) ● 공연 〈최영임 피아노 독주회〉 ● 전시 〈Tongue & Nail〉(~9. 25) ● 전시 〈Juventus〉(~9. 25)	**26** ● 연극 〈설레임이 찾아왔다〉(~9. 26) ● 연극 〈두 여자〉(~9. 26) ● 뮤지컬 〈홀연했던 사나이〉(~9. 26) ● 전시 〈김영배 회화전〉(~9. 26) ● 전시 〈이별의 공동체〉(~9. 26) ● 전시 〈움직임을 만드는 움직임〉(~9. 26) ● 전시 〈BEING HUMAN〉(~9. 26) ● 연극 〈브릴리언트〉(~9. 26) ● 무용 〈시빌〉
30 ● 뮤지컬 〈궁 나와라 뚝딱!〉(~9. 30) ● 공연 〈정오의 음악회〉			

연극

〈예라고 하는 사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갑작스럽게 좀비 바이러스가 도시에 창궐했다. 학생 대현과 성수, 그리고 여교사는 무사히 옥상으로 피신한다. 성수의 여동생 세연도 좀비를 피해 옥상에 도착하지만 피가 묻어 있다. 세연은 감염됐을까?

일시 9월 1일(수)~12일(일)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 휴관) | **장소** 나온씨어터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763-9135

삼일로창고극장 기획프로그램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

삼일로창고극장은 코로나 시대 극장의 역할을 모색했다. 뉴노멀 시대 극장의 존재와 필요를 탐구하는 공연과 전시 여덟 작품을 선보인다. 각 작품의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삼일로창고극장 인스타그램 @samilro_theatre_에서 볼 수 있다.

일시 9월 1일(수)~12일(일) 오전 9시~오후 6시(월 휴관) |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89-9636·9640

문래예술공장 전시

〈코로나 위장-움직이는 매개자Corona Camouflage-Mobile Connector〉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이다. 격리된 오늘을 돌아보며 앞으로 미술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고민하는 프로젝트다. 전시장을 벗어나는 이동형 전시이며 관람객은 VR고글을 착용하고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일시 9월 3일(금)~9일(목) 오전 11시~7시(월 휴관) | **장소** 스페이스나인, 유튜브 채널 '크로노토프' | **관람료** 무료 | **문의** 02-6398-7253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전시

〈MIND PLATFORM〉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다양한 시각 작품으로 표현한다.

일시 9월 3일(금)~16일(목)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070-5057-6235

무용 〈a는 A의 원소이다〉

일상생활을 누리는 익숙한 공간이 다르게 느껴진다. 안과 밖을 오가며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의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의식 속에 소외된 '나'의 인격들이 펼쳐지는 공간. 그 인격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불편하고 신선하며 때론 낯설다. 어떤 인격이 진정한 '나'일까?

일시 9월 3일(금)~5일(일) 금 오후 8시, 토 오후 5시, 일 오후 3시 | **장소** 연희예술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507-1315-2564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Piano & Talk'

〈가을의 브로맨스〉

현 추계예술대학교 피아노 전공 교수 김성훈·박성열이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감성적 선율로 들려준다. 유튜브에서 서초문화재단을 검색하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일시 9월 4일(토) 오후 3시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서리풀 休 갤러리 〈노래하는 나무들〉

'서초음악꿈나무 청소년 악기지원사업'과 연계한 전시다. 수리가 어려운 기부 악기를 시각예술 작품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노래를 창작한다.

일시 9월 6일(월)~10월 29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주말·공휴일 휴관) | **장소** 심산문화센터 서리풀 休 갤러리 | **관람료** 성인 1천 5백 원, 청소년 1천 원 | **문의** 02-3477-2074

금천예술공장 기획전 〈Selfish Art-viewer: 오늘의 감상〉

2021년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의 기획전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시장의 예약제 시스템, 전시의 온라인화, 디지털 가상공간에서의 작품 제작 등의 현상과 더불어 개인의 미술품 소장 경향성을 반영해 작품 관람의 개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일시 9월 7일(화)~26일(일) 오후 1시~오후 6시(13일(월)·20일(월)~22일(수)·주말 휴관) | **장소** 금천예술공장 | **관람료** 무료 | **문의** 02-807-4422

브런치 콘서트 〈여행시간〉

아티스트 아르츠 팝스 앙상블과 바리톤 김영재 그리고 딜라잇 챔버가 오페라·뮤지컬 명곡을 연주한다. 실력 있는 솔리스트 목소리와 클래식 연주자의 풍성한 연주로 친숙한 음악이 새롭게 느껴지는 기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9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2029-1725

전시 〈타이밍…ing〉

팬데믹 혼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가상세계에서 구현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전시다. 김형기 작가는 메타버스 시대에 본질과 허상이 뒤섞인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9월 8일(수)~10월 10일(일) 화~토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 일 오후 12시~5시 30분(월 휴관) | **장소** 공근혜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38-7776

연극 〈임지윤의 하루〉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창작 활성화 지원' 부문 선정작이다. 주인공은 라디오 '우리의 하루'의 DJ 유니와 게스트로 초대된 임지윤이다. '우리의 하루'에서는 임지윤을 표현하는 여성·장애·입양·퀴어 등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일시 9월 10일(금)~12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7시 | **장소** 이음센터 이음아트홀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10-9350-2351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단단한 내공으로 〈완창판소리〉 9월 무대에 명창 조주선이 올라 〈강산제 심청가〉를 부른다. 공연에 곁들여진 고수의 친절한 해설은 관객이 소리 듣는 재미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일시 9월 11일(토)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280-4114

2021 신진국악실험무대 〈개화開花〉

신진국악실험무대란, 전통 공연예술 신진 단체 및 예술가의 레퍼토리 개발과 데뷔 무대를 지원하고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전통 공연예술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무대다. 〈개화〉에서는 신진 국악 아티스트 다섯 팀, 윤은화·Groove&·고니아·Gray by Silver·오드리의 무대가 펼쳐진다.

일시 9월 13일(월)~1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웨스트브릿지 with KT 5G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7537-1578

공연 〈클래시네마〉

'클래시네마'는 클래식과 시네마의 합성어다. 공연은 관객에게 친숙한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 명곡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움직이는 그림을 화면에 비춰 시각적 재미까지 선사한다.

일시 9월 16일(목) 오후 8시 | **장소** 관악아트홀 | **관람료** 5만 원 | **문의** 02-828-5898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닭들의 꿈, 날다〉

닭에겐 죽음의 수용소인 양계장. 꿈마저 통제하는 그곳에서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닭 꼬비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다가 양계장에 잡혀간다. 가까스로 탈출한 꼬비는 새들의 천국으로 가지만, 그곳의 실상은 잔혹한 야생이다. 굶주린 독수리에게 사냥감이 될 뻔한 꼬비는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고자 비행 훈련에 돌입한다.

일시 9월 20일(월)~22일(수) 월 오후 7시, 화 오후 3시·7시, 수 오후 3시 |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3210-7001

로맨틱 클래식 렉처콘서트 〈At the Ballet(러시안 발레곡을 중심으로)〉

권그림과 조희연이 우리에게 친숙하며 발레곡으로도 쓰이는 스트라빈스키와 차이콥스키의 모음곡을 아름답고 우아한 멜로디로 선보인다.

일시 9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서초문화재단
Seocho Cultural Foundation

서초 음악 아카데미 〈Heart Concert〉

신세계면세점이 후원하는 서초 음악 아카데미를 통해 서초교향악단과 발달장애청소년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감동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일시 9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805

해설이 있는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연이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3대 명작 발레로 꼽히는 작품으로 동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일시 9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1만 4천 원 | **문의** 02-3477-2805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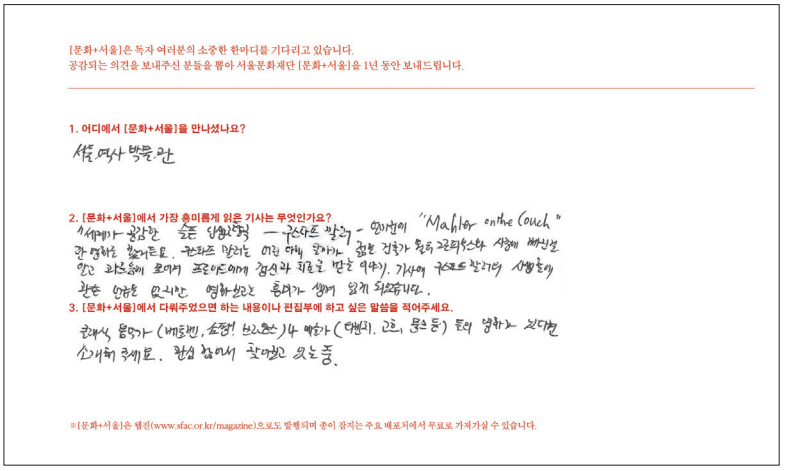
HOW TO BECOME
AN UNNECESSARY THEATER

2021 9.01 —— 삼일로창고극장 —— 2021 9.12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역사박물관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세계가 공감한 슬픈 인생교향곡 — 구스타프 말러' - 얼마전에 "Mahler on the Couch" 관람하고 왔거든요. 구스타프 말러는 어린 아내 알마가 젊은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와 사랑에 빠진 걸 알고 괴로움에 못이겨 프로이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야기. 기사에 구스타프 말러의 사생활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영화 보고는 흥미가 생겨 읽게 되었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클래식 음악가 (베토벤, 쇼팽, 브람스)나 예술가 (다빈치, 고흐, 뭉크 등) 들의 영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관심 많아서 찾아보고 있는 중.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Shane Kim 님(서울시 광진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역사박물관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세계가 공감한 슬픈 인생교향곡–구스타프 말러'.
   얼마 전에 영화 〈Mahler on the Couch〉를 봤거든요. 구스타프 말러는 어린 아내 알마가 젊은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와 사랑에 빠진 걸 알고 괴로움에 못이겨 프로이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야기. 기사에 구스타프 말러의 사생활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영화 보고는 흥미가 생겨 읽게 됐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클래식 음악가(베토벤, 쇼팽, 브람스)나 예술가(다빈치, 고흐, 뭉크 등)들의 영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관심 많아서 찾아보고 있는 중.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집 후기

마음이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가을에는 보름달처럼 힘이 차올랐으면🟡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9월에는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과거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식물들에 미안함을 전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유난히 덥고 답답한 여름 견디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나만 없어 식물 **장영수 객원 기자**

2021 금천예술공장 기획전시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 권도연, 김신욱, 김영글, 김영미, 김태연, 김희천, 돈선필, 문서진, 문이삭, 박형진, 신민, 유지영, 임노식, 전명은, 최윤, 허우중

SELFISH ART WEULER

:오늘의 감상

2021. 9.7-9.26

금천예술공장 창고동, PS333

공동기획
박수지, 송고은, 장혜정

연계프로그램 기획
맹지영, 신지현

주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금천예술공장

이우주 〈내면의 조화로움〉
3합장지에 석채, 혼합 재료 | 80×50cm | 2020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SSN 1739-774X